

理念포장 '밥그릇 싸움' 그만하라

光復 64주 —오늘의 韓國 진단

8·15광복이 64주년이 되었다면 정신적으로 세상을 달관하는 나이에 속한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10대처럼 치고 받고 있으면서 정신은 어린이처럼 철들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국회에서, 거리에서, 회사에서, 도처에서 힘과 힘이 부딪치고 대화는 막혀 있다.

보수와 진보의 패가 갈려, 서로 상대를 '좌파'나, '꼴통'이니 하면서 비난하기에 바쁘고, 중도와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들도 '좌'가 아니면 '우'로 몰려 입을 열기가 불안하다. '이성'은 실종되고 '감정'이 지금처럼 격화된 적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금융위기 이후 경제사정이 나빠진 상태에서 설상가상의 정치적 악재가 덮고 있다. 사회통합이 시급한 시점인데도 정치인은 물론 언론마저 패를 가르는데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왜 이런 사태가 왔는가? 그 원인을 캐보면, 멀리는 일제시대로 소급되고, 그 다음에는 남북분단과 6·25전쟁, 더 가까이는 압축성장에서 오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제의 국권침탈이 좌우경쟁을 남북분단으로 몰고갔고, 6·25전쟁이 좌우갈등을 이념이 아닌 감정대립으로 몰고 갔다. 죽고 죽이는 상황에서는 적과 동지만이 있을 뿐이고, 보수와 진보는 의미가 없다.

적과 동지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긴 것은 압축된 산업화였다. 우리는 단기간에 이룩한 경제성장을 '한강의 기적'으로 자부하고 있으나, 그 기적의 뒤편에는 독재와 인권유린의 그늘이 덮여 있었다. 산업화 세력의 시각에서 보면 체제도전자는 '좌파'나 '종북주의자'로 보였고, 민주화 세력의 시각으로 보면 산업화 세력은 '반민주적 가해자'로 보였다.

결과로 본다면, 산업화가 이루어져 중산층이 늘고, 민주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산업화 세력과 민

특별기고

한 영 우

이화여대 석좌교수



주화 세력은 서로 빛을 진 셈이고,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산업화세력도 고맙고 민주화세력도 고맙다. 오늘날 국민이 이 정도로 잘 살면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당사자들은 사정

랍까지도 '좌파'로 보고 소외시키는 듯하다. 그래서 진보정권에 '꼴통'으로 몰렸던 인사들이 갑자기 '좌파'로 몰리는 형세가 되고, 대북정책도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엄밀하고 냉정하게 말한다면, 이 나라에는 이념상으로는 극좌도 없고, 극우도 없다. 있다면 무시할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종다수로 당선되는 현행 선거 제도는 당선자의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당선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찬성자보다 반대자를 더 많이 가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반대세력을 포용하는 정치를 펴는 것이 마땅함에도 권력을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대세력을 무시하는 정치를 한다면 저항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3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있는가?

서구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가 융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약점이다. 한국 인처럼 전통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지적풍토를 가진 나라도 없을 것이다. 전통을 멸시하는 것은 자기를 멸시한다는 것을 모르고, 5000년 역사에서 우리 세대만이 잘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고 키워준 것은 조상의 덕도 크다. 대한제국의 국호가 우리의 국호이고, 대한제국의 태극기가 우리의 국기다. 대한제국은 명성황후가 죽어서 세운 근대국가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고종이 죽어서 세운 민주정부다. 3·1운동은 고종의 죽음 때문에 일어났고, 강탈당한 '대한'을 되찾겠다는 운동이었다. 헌법은 바뀌었지만, 국호와 국기는 그대로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제가 교육시킨대로 고종과 명성황후를 비난하고 있다.

대한민국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유교전통에 있다. 유교가 과거제도를 만들고, 출세하려면 공부해야 된다는 철학을 심어주었다. 그래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이고, 그 전통이 인재강국을 만들어 오늘날의 경제대국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유교를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는 버릇이 있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산업화 - 민주화세력 相生 · 포용 필요 대한민국 역사의 正統性 바로 알아야

이 다르다. 특히 민주정권을 자처하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은 '가해자'에 대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보수와 진보의 패를 확연히 갈라 놓았다. 그리고 보수정권이 추진한 남북관계를 백지화시키고 지나친 우호정책으로 나갔다. 정책의 연속성과 세대의 연속성이 무너지면서 산업화세력을 지나치게 궁지에 몰아넣었다. 중도적인 인사들까지도 '꼴통'으로 몰렸다.

진보민주 정권 10년간 소외된 보수세력의 반발이 이명박 정권 탄생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반대로 진보세력을 배제하는 편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중도적 균형 감각을 가진 사

수 있을 만큼 소수에 불과하다. 지금의 이념논쟁은 밥그릇 싸움을 이념으로 포장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다. 그러니 온건합리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 바로 이것이 국민들이 정치에 실망하는 첫째 이유다.

정치불신의 또 하나 이유는 부패의 만연이다. 이는 선거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품위가 중요한 교육감과 대학총장까지 선거하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나 모든 선거에는 돈이 당락을 좌우한다. 제 돈이 없으니 남의 돈 빌리게 되고, 여기서 부패가 조장된다.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부패의 고리를 끊기

光復 64주 —오늘의 韓國 진단

진보진영 파시즘論 주장은 虛構

최근 '진보진영'에서 이 나라에 파시즘의 초기 징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도한 언론도 있고 묵살한 언론도 있다. 파시즘論은 DJ의 '민주주의 위기론'이라는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좌익의 파시즘論은 두 개의 古典的 理論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나폴레옹 3세의 제국에 대해 '부르주아계급이 인민을 지배할 가능성을 잃어버렸지만 노동계급이 이를 쟁취하지 못하는 시기에 가능한 유일한 정부형태'라고 규정했다. 부르주아권력의 마지막 형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나폴레옹주의라는 얘기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견해도 비슷하다. 그는 새로운 것의 출현이 지체되는 위기 국면에 나타나는 병적징후의 하나로 파시즘을 규정했다. 그러나 그들의 분석이 딱 맞지는 않았다. 20세기의 파시즘은 민족갈등(국가갈등) 속에 계급갈등을 용해시켰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종말을 고했다.

아무튼 파시즘論은 두 가지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파시즘의 초기징후有無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둘째는 파시즘論이 만약 세를 얻게 된다면 앞으로 좌파의 투쟁방향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파시즘을 '좌익혁명'의 前단계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結論은 이렇다. 파시즘은 정치적 力動性이 활발한 사회에서만 가능했다는 것이 역사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파시즘의 정당성 부당성을 떠나서 그러한 力動性이 전혀 없는 사회다.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그 점이 우리 사회의 多幸이기도 하고 不幸이기도 하다. 아니 力動性이 없는 것은 아니다. 從北기획세력의 '무질서 조성'이라는 力動性이 있긴 하다. 그러나 그 力動性은 적대세력에 대한 '종속적 思考'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대상이 아니라 司法

처리 대상일 뿐이다.

따라서 파시즘論이 논쟁으로 발전하면 하나의 '유령소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國難은 非常한 體制의 조식을 요구하고 있다. 北核, 미사일, 사이버공격, 金正日 건강, 경제위기, 2종격투기의 국회 등은 건박하고도 치명적일 수 있는

時 論



金 哲

· 본보 편집위원
·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강사

좌익 혁명 前단계로 규정 투쟁가능성 자유·민주 추구 사회에선 있을 수 없어

안보위기다. 비상사태는 원래 비상체제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물론 非常體制가 곧 反民主인 것은 아니다. 2차대전 중에 미국도 영국도 비상체제를 운용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물론 파시즘에 입각해서 비상체제를 택한 나라도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비상체제같은 것에는 아무 생각도 없고, 또 그렇게 할 만한 역량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최근에는 10년 이상된 좌파청산은 하느듯 마는듯 해놓고 中道운운 하고 있다. 이런 정권에 파시즘 낙인을 찍는다면 난쟁이를巨人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다를 없다. 더욱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질서에 철저히 편입된 한국에서 파시즘 운운은 中古品 취미나 다름 없다.

그러면 파시즘은 무엇인가. 論者에 따라서는 독재정권이면 무조건 파쇼정

포르투갈)은 파시즘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나라마다 파시즘의 성장배경은 차이가 있고 색깔도 달랐다. 공통점이 있다면 大恐慌, 불세비즘의 대두, 그리고 1차대전의 후유증(戰後처리와 관련한 對內外的 문제)이었다. 紙面관계로 독일의 예만 간단히 언급해 본다. 나치즘은 敗戰의 배후를 유대인의 국제적 음모로 보았다. 그래서 귀향군인들의 박탈감, 몰락해가는 중간층의 공포, 그리고 좌익에 대한 바이마르공화국의 지극한 無能을 기회로 등장했다.

파시즘의 환경과 추진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기성체제가 對內外的 위협(안보·경제)에 대해 통제불능, ②. 體制無能으로 價値박탈감에 빠진 불만세력의 정치적 세력화, ③. 경제위기로 포티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로 階級格下되지 않을까 하는 중간층의 계급불안(요즘말로 빈부격차

의 심화에 따른 중간계층의 소멸), ④. 이 분노에 찬 세력을 더욱 큰 증오의 세력으로 조직하는 지도력의 부상과 그에 대한 대중적 지지.

파시즘은 기본적으로 대중운동을 기반으로 하고, 그 핵심은 가치박탈감에 빠진 광범위한 불만세력이다. 그렇게 보면 한국은 파시즘의 토양이 매우 不備하다. 파시즘의 路線성향은 기본적으로 우익이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좌우가 세대별로 양분돼 있다. 좌익적 性向은 젊은층에 만연해있고, 우익적 思考는 고령층의 특징이다. 물론 젊은층에는 信念의좌익(從北主義者를 포함)보다는 感性的좌익이 다수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한국 사회는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으로 인해 고령층이 박탈감에 빠진 부류이다. 그러나 고령층은 육체적으로 쇠잔하고 사회적 기회에서 소외돼 있다. 그런 만큼 고령층이 가치박탈감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고령층이 대중운동을 할 만한 정치세력으로 조직되기는 한참 어려운 일이다.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은 있다.

當面한 國難의 강도가 최대 최고치로 상승하고 좌익배후의 從北기획세력이 헤게모니 장악 일보직전까지 갔을 경우다. 그 때는 국가보위와 질서확립이란 차원에서 누군가에 의한 뜻밖의 결단이 대중적 공감을 얻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날로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는 눈여겨 볼 대목이다. 그러나 그같은 사태가 있다 해도 思想體系를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파시즘의 발흥이라고 想定하긴 어렵다.

그래서 이 엄중한 시기에 헨리 키신저의 "대중은 經驗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다. 따라서 정치가는 자기의 先驗的인 예지를 대중에게 설득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경험담을 이 땅의 위정자에게 상기시켜 주고 싶다.

선거제도 改革으로 부패고리 끊어야

1면에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 무엇인지, 그 저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모르는 이들이 한국의 정통성을 무시하는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대한'을 버리면 '조선'으로 가는데, 조선은 바로 '조선총독부'가 만든 호칭이 아닌가? 한편 일제시대를 재평가하려는 일부의 움직임도 한심하다. 그런 우익을 누가 존

경하겠는가?

광복후 서구문화 일변도로 달려오느라 정체성을 잃었다.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다. 서구문화는 개인, 자유, 발전을 가져오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온 공동체 문화도 아름다운 것이다. 금모으기운동과 축구응원단을 만들었다. 한데, 공동체를 편가르기에 이용하는 것이 문제다.

진정한 공동체 문화는 상대를 포용하는 마음이다. 유교, 불교, 무속이 모두

상생공동체를 부추기는 사상이다. 그런데 전통도 모르고, 모순과 갈등을 변증법적으로 지양하는 서구문화의 장점도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층이 많다. 그래서 세련된 서양문화도 없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장점도 살리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축적된 국민의 저력이 있어서 결코 망할 수 없는 나라이지만, 그 저력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또한 한국이 아닐까?

이제부터 산업화 세력과 반공세력 그리고 진보민주화 세력은 서로에게 고통을 느끼면서 상생과 포용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감정에 빠진 투사가 아니라 건전한 좌우이념을 가진 젊은 세대에게 바통을 물려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젊은 세대는 선배들이 있었기에 지금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고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하지 않을까? 중용이 그립다.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을 말한다

“記者면 다 記者냐” 언론인 正體性 위기

“언론은 산업 측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자와 기사 신뢰도가 떨어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요즘 두드러진 현상은 언론사와 기자들의 파당성입니다. 특정 업자나 업계를 대변하는 기자가 저널리스트가 아닌 것처럼, 특정 정파나 파당을 대변하는 기자는 저널리스트가 아닙니다. 또한 정부 돈을 받으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건 난센스입니다. 기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선 언론 초심으로 돌아가 내부의 치열한 자정노력과 현장 중심의 기자 재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 외길을 걸어온 원로 언론인 趙庸中 선생의 말씀이다. 대한언론인회(회장 趙昌化)는 7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趙 선생과 기자의 정체성과 관련한 대담을 가졌다. 이날 대담은 文明浩 부회장, 成樂五 大韓言論 편집위원장 겸 주간, 崔熙助 편집위원이 참석, 각각 질문을 하고 趙 선생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언론인이나 언론사 간에 전례없는 갈등 양상이 조성돼 ‘벽을 허물자’는 캠페인이 언론단체인 관훈클럽에 의해 전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요즘 ‘기자면 다 기자냐’라고 하는 기자의 정체성에 회의적 인식이 언론인들 사이에 팽배합니다. 언론인은 모름지기 어떠한 해를 해야 할지,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 趙庸中 선생을 모셨습니다.

“학자도 아니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으며 현업을 떠난지도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돌아가는 언론계 내부의 일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저널리즘의 위기를 강조해 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시다만 그건 대체로 두 가지 큰 줄거리입니다.

첫째는 언론 산업면의 위기입니다. 몇년전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저널리즘의 죽음’이란 내용의 칼럼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프린트 미디어는 몇 년이 못가 죽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산업으로서의 언론이 대단히 위기라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언론산업 종사자들로서 저널리스트들의 직업윤리라 할까, 신용면에서의 위기입니다. 기자와 기사의 신뢰도가 형편없이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신문과 방송을 막론하고 말입니다. 그 원인은 신문 방송에다 인터넷매체까지 미디어가 너무 많아진 반면 파이는 줄어 산업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빚어지는 위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양도 없는 사람들이 기자 행세를 합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운 보수를 받으며 기자 명함을 내밀고

인터뷰

조용중

- 동아일보 정경부차장
- 조선일보 정치부장·부국장
- 서울신문·경향신문 편집국장
- 연합통신 사장·한국 ABC협회장 역임



제대로 된 훈련도 안받고

제대로 된 보수도 못 받고

소양도 없는 사람이 명함만 들고...

신문·방송 막론하고

記事신뢰도 형편없이 떨어져

다닙니다. 그래서 취재원들이나 기자들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에게는 ‘너도 기자냐, 네가 무슨 기자냐’ 하는 좋지 않은 인상이 들게 하지 않나, 봅니다.

요즘에 와서 더욱 두드러진 현상은 기자들의 파당성입니다.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기자들이 양산되면서 기자들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저널리즘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치 파트 기자 중에서 ‘정치 기자’가 기승을 부리는 반면 ‘정치부 기자’는 힘을 잃는 양상입니다. 파당에 몰입돼 기자명함을 갖고 다니며 정치하는 기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외람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자로서의 신뢰도 잃고 언론산업의 발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자의 정체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앞에서 기자의 파당성을 말씀드렸습시다만, 기자가 어떤 정파를 대변하는 한 저널리스트가 아닙니다. 특정 업자나 업계를 대변하는 기자가 저널리스트가 아닌 것처럼 특정 정파나 파당을 대

변하는 기자는 저널리스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손태규 교수가 관훈저널 여름호에 언급한 미국의 허친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미국에서도 돈을 많이 번 사업가가 어느 날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 언론사에 손을 뻗치는 사례가 많은데 그에 관한 코멘트입니다.

‘미국의 신문 발행인들은 너무 자주 저널리즘보다 다른 분야에서 돈을 번다. 그는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부유한 사람이며 컨트리클럽 콤플렉스(주 : 상류층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발행인은 신문편집쪽은 거의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 유망한 사업가중 한 명이 된다. 그는 신문을 공공서비스 기관으로 보기보다 우선적으로 사유재산으로 간주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비판이 모든 발행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언론계에도 많은 부분이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사를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번 사업가가 부는 쌓았지만 자신의 명예욕은 충족시키지 못해 그 아쉬움을 덜기 위

해 언론사에 진출하고 저널리스트에 편입됩니다. 그래서 좀처럼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갑니다.

궁극적으로는 언론을 자신의 업체 이익 방패막이로 이용하게 됩니다. 거기서 무슨 저널리즘으로서의 사명감이 우려 나올 수 있고 기자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방송사나 언론사 종사자들이 모두 저널리스트라고 할 수 없듯이 어느 쪽이 진짜고 아닌지, 엄밀히 구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언론연구원장 시절에 아나운서는 언론인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아나운서협회 대표들의 항의 방문을 받아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뉴스를 전달하는데 써준 것만 읽는 게 아니지 않느냐, 어쨌든 언론인이 아니라고 했느냐며 따지는 거였어요.

언론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저널리스트들의 내부 자정 노력이 절실합니다.”

-PD는 어떻습니까.

“방송기자나 PD 관계는 신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PD는 독립된 분야로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저널리스트한 PD 가치가 주관적이며 의도한 방향으로 작품을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일방적 애기를 방송한다는 게 이른바 PD저널리즘의 큰 단점입니다. 이걸 극복해야 합니다. 기자 신용 추락의 최대 원인이 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 독립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란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PD 사회에 있어서도 취재보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더욱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닌가 봅니다.”

-기자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제대로 된 급여체계를 갖고선 지탱할 수 없는 신문사가 적잖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신문의 성장속도가 일반 기업에 비해 크게 뒤지기 때문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가 언론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원한다는 건 난센스입니다. 스웨덴이 어떻게 한다더라며 말도 안되는 논리를 강조하는 소장 학자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재정자금으로 신문을 도와줘 결과적으로 기자들이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저널리스트가 몇몇하겠습니까. 정부 돈을 받으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건 난센스입니다. 독립재정 확보는 언론사 책임이지, 정부나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신문사 사주의 책임입니다.”

4면으로 이어집니다.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을 말한다

黨派性 매몰되면 저널리스트 아니다

3면에서 이어집니다.

-언론사 간의 갈등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언론사간의 경쟁은 다분히 애교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파당을 짓고 언론사 간에 선의의 경쟁이 아닌 갈등과 반목, 대결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자들까지 당달아 거기에 휩쓸려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이 빨리 사그라들 것 같지 않아요. 언론 초심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모를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언론사간의 벽을 허물 수 없을까요.
“마찬가지지요. 단시일 안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일례를 들어 공채에 의한 기자수습제도와 순혈주의가 기자들의 언론사간 이동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공채제도가 일반화 하기 전에는 기자들의 신문사 이동이 아주 빈번했고 자연스러웠어요. 수습제도와 순혈주의가 좋은 점도 많지만 언론사간 벽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어요. 오늘날 언론사 간의 벽이 정파성 때문에 생

성된 측면을 더 강하게 꼽는다면 기자들의 신뢰회복 문제와 마찬가지로 언론 내부의 자정 노력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벽도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기자들의 취재활동이나 기사작성, 보도태도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

기 머리로 쓰는 건지, 현장의 문제점을 쓰기보다는 기자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쓰는 건 아닌지, 그런 지적입니다.

또 하나는 기자가 자신에게 제공되는 무수한 정보만 갖고 기사를 쓰지 말고 실제로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속 알맹이를 파헤쳐 기사화 해야 하는데 언론에는 그것이 잘 안 나온다는 사실입니

공유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모르는 사람을 향해 기사를 쓴다거나 전문가 연(然)하면서 기사를 쓴다면 그건 기자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기자가 조금 빠를 수는 있지요. 지난 번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몰고 온 인사청문회 때 박지원 의원은 자신이 입수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천 내정자가 거짓말을 한 걸 들춰내 보였는데 왜 언론사는 모르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자는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기사를 본다는 전제 아래 기사를 취재 보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문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전문가가 보더라도 아주 쉽게 기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기사를 쉽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언론사와 권력은 유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기자들의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커리큘럼 교육이 아닌 현장 중심의 재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리=崔熙助 편집위원
(중부대 초빙교수)

政府돈 받으며 “權力에서 독립” 말안돼 언론계 내부의 치열한 自淨노력 펼칠때

십니까.

“요즘 기자들은 참 바쁘겠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소스(취재원)가 많아졌으니까요. 기자들의 교육수준이나 견문도 그 전보다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기사의 어휘와 같은 경우도 궁리를 많이 해서 골라 쓰는 것 같아 좋아 보여요. 그러나 최근 기자들의 기사에는 저돌적인 면이 덜하지 않나 싶어요. 다투기도 하는 점입니다. 매끄럽게 쓰면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과연 기자 자신이 취재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

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로더(David Broder)가 왜 ‘언론의, 언론에 의한, 언론을 위한’ 기사를 쓰거나, 언론인 만이 알 수 있는 얘길 갖고 기사를 쓰면 안 된다’고 피력했는지, 새삼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후배 기자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해주십시오.

“옛날엔 기자들에게 지사정신이 있었어요. 특정 정파를 대변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요즘엔 정보를 모두가

7월 건강포럼 성황 ... 8월엔 휴강

대한언론인회와 한국성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는 7월 언론인 건강포럼이 지난 달 11일 명동에 있는 이운수·조성완 비뇨기과에서 열렸다.

이 날 연사로 나온 이운수 박사는 ‘의학과 공학의 만남’이란 강연을 통해 “인간은 의학과 함께 발달하고 있는 의료공학으로 인해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CT나 MRI 등 방사선 진료 영역이 크게 발달하고 있으며 또한 치료면에서도 인공관절, 인공각막 등을 들 수 있고, 발기부전 환자의 경우도 음경보형물 수술을 할 수 있어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발기 능력을 되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또 “공학 외에도 치료에 있어서 줄기세포의 사용 가능성에 의해 신의 영역으로 불리던 영원한 삶조차 넘나보게 됐다”고 전망했다.

강연에 참석했던 회우들은 강의가 끝난후 이운수에 있는 치킨집으로 자리를 옮겨 이운수 박사와 함께 생맥주를 들며 토요일 오후 한 때를 즐겁게 보냈다.

특히 이 날은 지난달 오전식 회우가 회식비 전부를 낸데 이어 이번에는 전 대한언론인회 회장이었던 제재형 명예회장이 선듯 회식비를 부담해 참석한 회우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지난해 6월 14일 처음으로 시작된 대한언론인회 건강포럼은 이번 강연으로 1주년을 맞았는데, 초창기에는 한국성과학연구소 소장인 이운수 박사가 주로 ‘노년기 성,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등 주로 성 문제를 다뤘다.

이후 조성완 비뇨기과 전문의, 김경희 비뇨기과 전문의 그리고 장우성 약학 박사 등도 강연에 나왔다.

특히 작년 말에는 건강포럼의 행사로 전립선 무료검진 행사를 벌여 무려 164명의 회우들이 참여했다.

건강포럼은 이달 8월에는 휴가관계로 쉬기로 했으며, 9월부터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강연을 다시 시작할 예정인데, 11월중에는 전립선관리협회와 함께 2차 전립선 무료검진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보길 편집위원〉



7월 건강포럼에서 이운수박사의 강의.



7월 건강포럼 뒤풀이.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을 말한다

“記者” 넘발시대 프로정신 바로 서울대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나운서 손범수씨와 개그우먼 김미화씨가 출신 대학의 언론인 모임으로부터 ‘자랑스런 언론인상’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연예인이라고 불러야 할 아나운서와 개그우먼이 언론인들로부터 언론인상을 받았다면 이는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언론인의 정체성에 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과연 언론인은 누구이며, 자신을 언론인이라고 불렀던 언론인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언론은 직업이지 취미나 특기 활동이 아니다. 언론인은 특권계층도 아니지만 아무나 될 수도 없다. 그러나 새로운 미디어의 발달 탓에 언론을 취미나 특기 활동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언론과 관련한 아무런 제도적 배경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자, 분석가, 해설가 등을 자임하며 자기 식대로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독자를 상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생산하는 각종 정보가 저널리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인터넷에 시민기자, 블로거들이 올리는 글이나 영상에는 의견과 주장만 있고 뉴스는 드물다. 그 뉴스조차 통신에 의존하거나, 정확한 취재가 뒷받침되지 않는 부실한 내용이 많다. 상당수의 글들은 홍보나 광고에 지나지 않는다. 홍보와 광고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자율성 없이 생산되기 때문에 언론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언론인’들이 생산하는 정보의 양은 막대하고 그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그들의 정보와, 전통 매체가 생산하는 뉴스의 차이를 엄밀하고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과 신문·방송 기자들의 차이를 엄정하게 식별하지 못한다. 그들이 생산하는 정보가 부실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뉴스’와 ‘기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누구라도 기자가 될 수 있는 언론 환경에서 언론의 질의 추락은 불가피하다. 도대체 언론은 무엇이며, 기자란 무엇을 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회의와 의문은 더욱 깊어져 갈 뿐이다.

‘기자’를 엄밀하고도 적절하게 정의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 법조인이나 의사와는 달리 기자는 면허증이 필요 없다. 면허증과 같은 증명서는 국가기관의 개입을 불가피하도록 만든다. 그것은 정부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생명인 언론에 치명적이다. 더욱이 기자 행위를 한다고 해서 특정한 교육과정이나 훈련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굳이 기자가 무엇 하는 사람인지를 세밀하게 따질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기자에 대한 정의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명예훼손이나 법정 증언 등의 문제가 생길 때에 규제 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기자의 범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신문법은 언론의 범주에, 정치·경제 등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인터넷 신문을 포함시키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만을 다루는 법이므로 “언론보도는 방송이나 정기간행물 등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규정했다.

두 법 모두 기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법적 차원에서 한국의 언론인은 신문·방송이나 통신·정기간행물·인터넷 신문 등에서 보도나 논평 또는 여론의 전파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추정될 뿐이다.

한국의 언론법은 거의 언론자유에 대한 규제의 목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은 반대이다. 미국의 법원이나 법이 기자를 정의하는 이유는 언론에 특권을 주고 보호하기 위해

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기자들이 누리는 언론자유가 일반 국민들의 언론자유와 다를 바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언론자유는 신문 등 정기간행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팸플릿이나 벽보에도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급 법원에 의해 ‘기자’로 인정된 사람들은 법정에서 취재 비밀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이른바 ‘기자의 특권’이다. 현재 30여개 주에서는 ‘방패법(Shield Law)’으로 기자의 특권을 보호하고 있다.

각 주의 방패법은 기자를 정의하는 법원의 원칙들에 추가적 요소를 담아 제정되었다. ①. 빈도와 정기성 : 가끔, 비정기적으로 프리랜서처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사람은 기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언론기관을 통해 뉴스를 취재, 작성, 편집하는 일에 정기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기자로 정의한다. ②. 규모와 주제 : 적정 규모의 독자와 시청자가 있는 언론기관에서, 뉴스의 취재, 보도, 편집 등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기자로 정의한다. 특정 주제만을 다뤄 소규모 독자나 시청자를 가진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기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③. 인정 : 전문기관 등이 인정하는 신문, 방송, 통신 등을 위해 뉴스의 취재와 보도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기자로 정의된다. 언론의 인정성은 전통적 언론 매체, 제도 언론과 동일시된다. ④. 프로 정신 : 자신의 생계를 언론 기관에 의존하는 사람을 기자로 정의한다.

법원이든 방패법이든 대체로 책의 저자나 프리랜서, 비영리 언론 종사자, 블로거 등은 언론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의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전통 매체의 기자들이 ‘기자의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이는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위해 정부의 간섭과 규제로부터 독립되고 자율적인 제도언론(Institutional press)을 헌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제 4부’ 이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많은 기자들은 지금처럼 아마추어들의 유입이 계속 된다면 전문 언론인들의 직업적 기준이 훼손됨은 물론 경험이 많은 언론인들이 인터넷의 폭도들에게 부당하게 폄하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난립으로 인한 언론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이며, ‘새로운 언론’의 전통 언론에 대한 무차별 공격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다. 미국의 기자들은 블로그나 시민 저널리즘은 뉴스가 아니라 의견, 감정, 반응이라고 주장한다. 그것들은 정확하지도 않고 책임도 없다. 블로거나 시민기자들은 경험도, 에디터도, 기준도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험을 원용하면 아나운서나 개그우먼이 뉴스 전파에 약간 관계했다 해서 언론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전통매체 또는 제도언론의 기자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모

임에서 그들에게 언론인상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 만큼 한국 언론은 혼돈 상황에 있으며 한국의 언론인들은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빠져있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인들이 정부나 사회로부터 정당한 법적 특권을 보장받은 적이 별로 없어 누구도 엄밀하게 기자의 범주를 따지지 않은 결과다.

기자들을, 비슷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구별하는 것은 그들의 윤리적 행동과 책임성, 투명성, 객관성, 프로페셔널리즘이다. 한국의 기자들이 그 동안 보인 행태는 스스로를 ‘기자’로 정의하기엔 부끄러운 점이 많았다. 스스로 기자임을 망각하거나 포기한 면이 없지 않았다. 굳이 사회적 인정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 최소한의 직업적 자부심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언론인들은 누구를 기자라고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해야 한다.

특별기고



손 태 규

단국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의 언론인들은 스스로 기자임을 망각하거나 포기한 면이 없지 않다.

개그우먼에게 ‘언론인상’ 수여 하다니 블로거 - 시민기자 제도권과 구별돼야

‘한국의 월터 크롱카이트’는 왜 안나오나

2007년 한국에서 좌파 정권이 기자실 폐쇄 등 언론 억압정치로 한창 소란을 떨 때 세계에서 두가지 흥미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언론 노병 한 사람이 91세 나이에 방송 복귀를 하는가 하면, 71세 아직 한창인 또다른 방송인은 언젠가 복귀를 전제한 은퇴를 선언한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노인 만원 사제로 변해가고 있다지만 이젠 좀 심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았다.

그 주인공 중의 한 사람이 2년 뒤인 09년 7월 17일 별세한 미국의 월터 크롱카이트, 전설의 CBS 앵커이다. 또다른 이는 일본 TBS 앵커 지쿠시 데스야. 원래 아사히신문 워싱턴 지국장 등을 거쳐 방송계에 입문한 사나이이다. 크롱카이트는 62년부터 19년간 미국 제 1의 앵커로서 명성을 날리다 81년 은퇴, 16년 만에 복귀선언을 했다. 데스야는 89년 10월 일본 TBS의 ‘뉴스 23’ 프로의 신설과 함께 초대 앵커로 취임, 진보적 시각의 뉴스 진행을 하다 2007년 5월 은퇴 선언, 두 사람 모두 19년간 앵커 생활을 한 묘한 기록을 공유한다.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들어오고, 2007년 세계적 명 앵커 2인의 상반된 움직임에 주목하는 이는 별로 없었다. 아마도 미국과 일본이라는 지역적 격차 때문일 수 있으나 고령의 두 앵커가 조로(早老) 풍토의 언론계에 강타를 먹인 것은 사실이었다. 그것도 20년 연상의 크롱카이트는 오랜 침묵을 깨고 현업에 복귀하고 20년 젊은 데스야는 폐암 진단 받은 것을 공개하며 은퇴를 선언한 것이다. 다만 데스야가 우리 나이로 72세 중늙은이임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친 뒤 다시 돌아오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힌 것은 크롱카이트의 현장 복귀 기백에 하나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실제 방송국은 그의 자리를 비워놓겠다고 약속했다. 늙어서까지 명예를 지키며 고고히 살다 간 사람들은 흔치 않다. 그러나 또 찾아보면 얼마든지 그에 들 수도 있다. 어렵지만 노력하기에 따라 가능하다는 희망이 인간을 따뜻하게 만든다. 크롱카이트도 그런 희망을 주는 사람중 한 분이다. 손 맥머너스 미국 CBS사장이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앵커, 최고의 앵커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위기와 비극, 승리, 위대한 순간에 미국을 이끌었다”고 추모한 것을 과장이라고 여길 미국인들은 거의 없다.

1962년부터 1981년까지 크롱카이트는 미국 CBS 이브닝 뉴스를 진행하며 갖가지 중대한 사건을 취급하고 놀라운 평가를 받았다.

미국의 영웅 케네디 대통령 암살, 수렁 속의 베트남 전쟁, 흑인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 아폴로 11호 달 착륙, 닉슨 대통령을 사임시킨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 등 도전과 응전의 시기를 냉철히 소화해낸 것이다.

1916년 미국 미주리주 조세프에서 태어난 그는 고교 시절부터 학보사 편집

등 언론 일에 관심을 갖다가 텍사스 대학을 중퇴한 뒤 UPI통신의 전신인 UP 등 여러 언론사를 거쳐 1950년 CBS에 기자로 입사했다. 미국의 언론 시스템은 신문 사별 모집제이기보다 지방 군소지 등에서 일단 검증을 받은 뒤 큰 매스컴으로 옮기는 패턴임을 생각할 때 크롱카이트 역시 군소 언론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마침내 CBS로 갈 수 있었던 셈이다.

하나 사족을 달자면 그가 왜 고향의 미주리대학에 가지 않고 텍사스 대학을 갔는지가 의문이다. 미국 미주리주 컬럼비아시 소재 UMC(미주리 컬럼비아대학)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신문방송학과를 통해 수많은 언론인들을 배출해온

가닭이다. 필자도 거기서 1년간 연수하며 많은 인생, 언론 학습을 했다고 자부한다. 사실 확인에 게으르거나 사실을 왜곡 해석해서 독자와 시청자에게 내보낼 때 생기는 폐해는 우리 2008년 광우병 파동 때 익히 드러난 일이다.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은 앵커의 조건(09년 7월 22일자)이란 칼럼에서

태평로에서



민 병 문

· 본회 회우
· 헤럴드 경제신문 주필



월터 크롱카이트氏.

모름지기 반성하고 자기 역할로 돌아가야 할 터이다.

사실에 입각해서 어떤 편견에도 사로잡히지 않은채 뉴스를 전달하는 것은 기자와 앵커를 포함한 언론인의 사명이다. 크롱카이트는 늘 “앵커는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이지만 평론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논평을 거부했다. 사실 그가 활

송의 이념 왜곡 오해가 나오게 된 것이다.

견해와 주장은 해설위원이 그에게 주어진 시간에 나와 전하면 된다. 그것이 회사 의견이든, 회사가 믿고 의뢰한 해설위원의 개인적 판단이든 상관 없다. 언론사 각자에게는 주어진 일이 따로 있다. 앵커는 사장도, 사주도, 회사 의견의 대표자도 아니다. 뉴스 전달 사회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기 영역을 넘어 앵커 등 언론계 종사자들이 저마다 이념과 주의를 확산시키려 한다면 그 언론사는 특정 정치파벌의 손발이 되기 쉽다. 특히 그런식 사고를 가진 앵커들이 한국 방송계에 만연한 사실은 크롱카이트를 보며

깃 홍보를 해됐다.

그러나 크롱카이트는 달랐다. 베트남전을 직접 취재한 뒤 68년 2월 CBS이브닝 뉴스를 통해 월맹군의 구정 대공세 등을 여과없이 전달, 미군의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피해 상황을 국민에게 알린 것이다. 그의 보도 요지는 “정부의 근거없는 낙관론에 속기보다 현장 분위기는 승리보다 협상을 요구한다”고 보도한 것이다.

이 때 TV를 보던 존슨 대통령은 “이제 모든 게 끝났다”며 다음 대선에서 출마를 포기해야 했다. 그의 또 하나 특징은 클로징멘트의 독특한 뉘앙스에 있다. “That’s the way it is”란 그의 뉴스 뒤 마지막 멘트는 우리 말로 “세상 일이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또는 “그게 현실입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등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었으나 얼핏 시니컬하게 들리는 것은 분명하다.

그 만큼 여운이 떠돌게 하는 것도 결국 매력의 하나였던 셈이다. 월터 크롱카이트의 탁월한 면을 살펴다보니 그와 같은 대앵커가 한국에서는 왜 나오지 못하는가 자괴감이 든다. 과거 일제 식민지 시절부터 독재정부와 군사정부를 거친 우리 언론사는 충분히 이런 대언론인을 배출할 배경과 소양은 돼있다. 그런데도 누구라고 딱히 찍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사실보다 이념과 주장에 얽히거나 중간에 변신하는 인사들이 너무 많았던 까닭이다. 한국 언론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언론 환경이 대기자, 논설위원, 앵커 등을 낼 만큼 여유를 갖지 못한 것이다.

독재정부 시절에는 그나마 언론 자유라는 대명제 아래 개개 언론인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으나 이른바 서울의 봄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만개한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도리어 대언론인을 낼 풍토가 사라졌다. 참으로 아이러니 아닌가.

그렇게 열망하던 자유와 민주주의 정부 체제를 갖추고 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에 따라 서로를 비방

하는 정치풍토 속에 언론인들도 함몰돼 존경할 만한 언론인 배출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만 그대로 따르면 되는 데 이를 외면하기 일쑤다. 헌법이 있는지조차 가물 가물한 정치인·언론인들이 비일비재하다. 혹시 헌법 준재를 알려라도 아전인수로 해석, 비방과 훼손을 끈임없이 해댄 결과 큰 언론인이 나오지 못한 셈이다.

여기다 언론인들의 자긍심은 해가 갈수록 얹어져 간다. 과거 ‘무관의 제왕’이란 호시절은 어디로 갔는지 까마득하다. 입사 당시 기세쫄던 의욕은 사라지고 신문사 밥 몇년만 먹으면 좌절하다 못해 타직종을 넘보기 심상이다. 아마도 일에 상응하는 대우를 회사는 물론 사회에서도 받지 못한다는 열등감의 발로 아닌가 싶다. 한 마디로 천직 개념이 사라졌다.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하는 언론인 역할에 충실 短命·박봉속 ‘철새’ 판치는 우리 언론 풍토 한심

이와 관련 그럴듯한 비유를 했는데 이를 인용해본다. “08년 3월부터 13개월간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한 신경민씨는 종영 직전 30초를 주관자 코멘트 코너로 이용했다. 물러나는 날 마지막 클로징멘트에서 ‘언론의 비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암울했다’고 했다. 그를 단명으로 끌고 간 것은 바로 공감의 떨어지는 이런 식의 클로징멘트였다.”

그러니까 크롱카이트가 앵커로서 장수한 것은 사실 전달에 충실했지 어쭙잖은 평가를 함으로써 독자와 시청자의 의견을 왜곡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곧 뒤이어졌다. 그렇다. 앵커라는 이름의 직책이 새로 만들어진 것도 실은 크롱카이트의 사실 전달의 충실성을 높이 평가, 그에게 처음 붙여준 결과다. 이를 잘못 이해하고 앵커가 뉴스 전달을 넘어 견해와 주장까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한데서 특정 방

악하던 60년대, 70년대 미국 저널리즘에는 주장 저널리즘(Advocat)이 만연하던 때였다.

그럼에도 그는 기자의 소신과 주장, 조급한 판단보다 기자와 앵커는 진실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파헤쳐 보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미국인들도 동조하고 그를 성원했던 것이다. 이 결과 대통령 말은 못믿어도 크롱카이트말은 믿을 수 있다는 신념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다.

그런 결정적 계기는 월터 크롱카이트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베트남을 방문, 현지에서 죽어가는 미군과 베트남 사람들의 참상을 목격하고 사실 보도를 한 이후 만들어졌다. 60년대 후반 미국의 베트남 전쟁은 수렁 속에서 헤어날 줄을 몰랐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정글 속에서 죽어갔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미군이 선전하고 있으며 전쟁은 조만간 승전으로 끝날 것이라고 거

미디어法 개정 放送독과점 해소 계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누더기로 입법되어 '진입은 자유롭게, 사후규제는 실효성 있고, 엄격하게'라는 애초 취지에 비추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법안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80년 신군부가 구축해 놓았던 배타적 방송독점 체제를 실질적으로 종료한 사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는 실로 역사적인 일이다.

다공영 1민영 방송체제로 인해 우리는 그 동안 심각한 여론왜곡을 인내해야 했다. 80년 당시의 '땡전뉴스'는 물론이고 중요한 시기마다 독과점적 방송은 심각하게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부추겼으며 심지어 국민 주권까지 유린하였다. 2002년 사기꾼 김대업 보도로 당시 야당 후보의 지지율을 뺏아 가는 약 11%, 적게는 약 5% 가량 하락시켰다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은 판결하였다. 2002년 대선이 2%대 차이로 종료하였으니 방송에 의해 국민주권이 유린된 것이라 단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방송 쿠데타이다.

이에 노무현 前 대통령은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방송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라고 고백하였다. 2003년 3월 4일 KBS 공사 창립 30주년 행사에서 한 말이다. 아무튼 그 양반의 솔직함은 어디서나 유별나다. 이렇듯 국민 주권까지 유린할 정도이니 광우병 소 파동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사양화되고 있는 신문을 마치 여론독과점의 주범인양 현혹하며 미디어체제 개편에 반대하게 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상파의 여론 독점력은 여러 조사로도 입증되어 왔다. 2년마다 한 번씩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해온 한국언론재단의 통계는 왜 이런 혼란과 주권유린이 발생했는지 명쾌하게 보여준다. 방

송 3사의 대국민 영향력은 라디오를 포함해 약 60%이다. '네이버'와 '다음'을 합하면 약 21%이다. 반면 조선·동아·중앙의 영향력을 합해 보아야 겨우 8.2%에 불과하다.

주요 사건들의 보도에서 대체로 80 : 8의 게임이 된다면 그것의 결말은 예측할 필요조차 없다. 이 어마어마한 매체 집중은 신군부식 방송독점 체제에 의해서 보호되어 왔다.

이제 이 울타리가 걷혀지기 시작했다. 매체 다양성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미디어 선진화는 둘째로 하고 이제야 비로소 매체 민주화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어찌 이것이 역사적이지 않을 수 있겠는

80년대 신군부가 구축한 배타적 체제 종료 글로벌 미디어로 세계 향한 도전에 나서야

가? 바야흐로 권력과 이념에 의해 방송이 좌우되는 시대가 가고 있다. 이 마지막 변화의 지점에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거짓선동을 하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따로 없다.

미디어법 개정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전을 독려하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가 바로 그것이다. 요즘 청년들에게 유행하는 은어 중에 '영드' '미드'라는 말이 있다. 필자도 처음엔 이 말의 뜻을 몰랐다. '영드'는 영국 드라마의 준말이고, '미드'는 미국 드라마의 줄임말이

특별기고



최 홍 재

공정언론 시민연대 사무처장

다. 막장 드라마 보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 드라마를 즐기는 세대가 바로 우리 청년세대다. TV를 통해 외화를 보던 세대와 전혀 다르다. 글로벌 세대가 우리 내에서 자라고 있다. 신문이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반드시 활자에만 안주해서는 되지 않듯이 방송이 청년시청자들을 붙잡으려면 이제 막장 드라마 같은 것으로는 턱도

없다. 이 추세는 강화되면 강화되었지만 그 역은 상상조차 불가하다.

게다가 허위보도, 편파보도로 우리 청년들과 국민의 사랑을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바보라니 일고의

가치가 없다. 미디어 종사자들은 외국 글로벌 미디어그룹을 경쟁상대로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안으로는 확대되어 가는 청년시청자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밖으로는 새로운 시청자 층을 넓혀갈 수 있다.

국경선 내에서 안주하던 방송의 시대는 종료되고 있고 이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속화될 것이다. 글로벌 미디어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다. 반도체와 핸드폰을 만들고,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국내에서만 판매할까, 세계를 무대로 할까'하는 고

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

우리는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글로벌 미디어그룹과 조건이 다르다고 한다. 따져 보자. 바로 옆나라 중국 13억, 일본 1억5천만, 필리핀과 베트남이 약 1억 명씩, 인도네시아 2억5천만 등 우리 나라 주변만 해도 20억의 인구가 밀집해 있다. 이들에게 우리의 콘텐츠가 한류로 명명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해 볼만 하다. 심형래 감독의 말대로 "안 해서 못하는 것이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삼성이 소니를 제치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는가? 현대가 GM을 위협하리라고 가정조차 해 본 사람이 있었는가 말이다.

그런데 과연 이들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물안 개구리로 있다가 그 우물이 닳아는 날은 사멸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지금 도전할 기회를 놓치면 '나도 왕년에 국민 주권까지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을 가졌었다'는 한탄 만이 우리에게 흘러간 옛노래로 들려오지 않을까 한다.

지금 실업문제로 온 나라가 시름에 겨워한다. 실업자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 아픔이다. 이들 중 가장 큰 아픔은 단연 취업조차 못해 본 청년 실업자이다. 사회의 문턱에서 좌절해버린 이 청년들에게 기성인들은 최대한의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그 배려의 최고는 그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의이다. 이들이 취업해서 도전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이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미디어 활성화와 글로벌 미디어로 발전하기 위한 도전은 이들과 함께 시작될 것이다. 그 끝은 이들이 흘린 땀 만이 알 뿐이다.

6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전직을 더듬는 풍토에서 대언론인이 자리잡을 여지는 없어진다. 언론사를 디딤돌로 정치계, 기업계, 학계로 나가려는 언론인들이 줄을 서고 있는 한 크롱카이트는 나오지 못한다. 더욱이 한국 언론계의 조로 현상은 시초부터 예비 언론인들의 기를 꺾어 놓는다.

불과 나이 50세만 넘으면 자리 보존이 불안해지는 언론인을 향해 뽕잎 먹는 누에처럼 살라고 조언할 수는 없다. 정년이 회사에 따라 만 58세, 55세, 임원급 60세 등 다양하게 있지만 그게 지켜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미국의 경우 86세의 헨리 토머스 여가자가 백악관 앞좌석을 빼앗길 뻔하다 케네디 이래 9명의 대통령을 모신 관록으로 유지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07년 3월 19일 한국 신문을 장식했었다.

크롱카이트에 이어 CBS의 앵커 자리

를 24년이나 유지했던 75세의 덴 래더가 44년만에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는 기사는 06년 6월 19일자에 보도됐다. 그 이틀 뒤 21일자 보도는 더 찬란하다. '기자 생활 시작한지 75년,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는 리드 기사를 앞세운 보도 내용은 영국 언론사상 최장수 기자인 윌리엄 디디스 씨가 93세 고령에도 여전히 노트 북을 들고 매일처럼 취재활동에 나선다는 것이다.

텔레그래프 기자인 그에게 은퇴 시기를 물으면 곧잘 앨프리드 E 하우스먼의 시구(詩句)로 응답한다는 내용이다. "여보게, 여행이 끝나면 잠잠 시간은 충분하다네." 이런 말과 함께 그는 굳이 신문사 데스크에 머물지 않고 일선 취재에 나서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건강과 의욕이 있으면 장수할 수 있는 언론 풍토야말로 제 2, 제 3의 크롱카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다.

사실에 입각, 주의와 이념에 휘둘리

지 않으며 오로지 언론 한길을 걸겠다는 신념이 대앵커를 탄생시켰다. 본인과 사회, 국가가 함께 만들어낸 언론 걸작품이라 할 수 있다. 과연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 가능한가. 위인은 만들어진다는 가설을 부인할 수 있는가. 지금으로선 답답한 일이지만 조용히 그 시절을 기다려 보자는 제안으로 위로를 삼고 싶다.

하나 덧붙인다면 언론 개개인의 수명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모름지기 오래 살지 않으면 크롱카이트 닮는게 불가능하다. 33세로 요절한 모차르트야 천재 음악가니까 일찍 가도 성가를 올렸지만 말많은 언론계에서 비천재가 천직과 신념만으로 이른 나이에 크롱카이트는 되지 못한다. 적어도 80살, 나아가 90살은 살아야 한국의 크롱카이트가 될지 말지다. 필자처럼 70세 현직 주필 갖고는 명함도 못내밀 처지다. 술 담배 등 기호식품 멀리하기, 규칙적 운동하기 등 나름대로 건강 100세 관리에 일단 나서고

불 일이다.

'조·중·동' 아닌 군소신문 입장은 더욱 서럽다. 차별 시정을 외치는 정의의 언론계가 큰 방송, 작은 방송, 큰 신문, 작은 신문, 인터넷, 지하철신문 등을 따지며 뭔가 자욱한 안개 같은 것에 가려져있는 느낌이 팽배한 것은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다. MB정부의 숙원인 미디어법 개정안이 09년 7월 22일 어렵게 어렵게 통과했지만 거대 언론의 여론 독과점을 우려한다는 게 난항을 겪은 이유였다.

규모와 상관없이 언론 외길을 한 눈 팔지 않고 꾸준히 걸어온 언론인을 평가할 줄 알 때 한국에도 크롱카이트 탄생의 여백이 생겨난다고 본다. 매체 영향력은 중요하지만 상대적이다. 끼리끼리 문화가 극성인 한국에서 그나마 문화인을 자처하는 언론계 스스로가 자성하고 분발할 일이다.

현장 중계만 치중 解法제시가 없다

신문시평



최 병 요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경제 편집위원

신문 한달치 구독료가

피자 한판 값인데

독자들이 비싸다고

불평하는 것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탓이다

신문의 월 구독료는 15,000원이다. 피자 한 판을 배달시켜 먹어도 15,000원인데, 한 달 내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싱싱한 정보를 현관 앞까지 배달해 주고도 같은 가격이라니 독자의 입장에선 좀 미안할 듯도 싶다.

그러나 요즘의 독자는 결코 신문 값이 싸다고 느끼는 것 같지 않다. 신문의 위상과 내용, 품위가 훨씬 앞서 있을 때에도 지금보다 낮은 가격이었는데, 가치와 품질이 예전의 밑고 의지할 만한 수준에 못미친다고 여기는 터에 웬 구독료 타령이라는 속내다.

오히려 신문 값은 비싸다는 게 정답일지 모른다. 뉴스의 속보성은 물론 현장감과 귀만 열어도 되는 편의성(便易性)에서 방송매체에 뒤지는데다 정확성, 불편부당성, 분석과 해설에 있어서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상세한 보도와 명쾌한 대안 제시인데 단순한 현장중계로 문제점만 부각시킬 뿐 자신 있는 해법 제시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기껏 일삼는 게 해당 전문가라는 사람의 알맹이 없는 말장난을 한두 마디 삽입하거나 이쪽도 그르고 저쪽도 그르니 양쪽 다 그르다는 양비론으로 얼버무리는 책임 회피다. 최근 논란의 대상이었던 비정규직법안, 쌍용자동차 파업, 전국에 걸친 집중폭우 등에 대한 신문보도가 이를 잘 말해주다.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안은 동아일보가 ‘非정규직’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정규직 일자리를 꺾차지 못한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비참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사안의 문제다. 이는 계약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조선일보의 경우 6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 22일 동안 74건의 관련 기사를, 같은 기간 동아일보는 88건의 기사를,

로만 강제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두 노총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한겨레가 자신 있게 제시한 해법은 고작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빨리 물러 나야 할 이유”(7/7 사설)로 ‘기본 철학이 부적격해 그가 있는 한 비정규직법 매듭은 풀리지 않는다’는 준엄한 경고였다.

그나마 해법의 근사치를 제시한 것은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등 경제신문이었다. 한국경제는 7월 7일자 ‘다산칼럼’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기간제한 규제를 풀어 부풀려진 노동비용을 낮춰 생산성과 노동비용의 등가성을 회복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에 대한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도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 외환은행”(6/30)의 극복사례를 소개하면서 7월 2일자 ‘데스크칼럼’에서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의 운영”을 제안했다.

15,000원 짜리 신문의 무성의와 식견 없음은 이번 전국을 강타한 집중폭우 보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7월 5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에 조선일보가 취급한 기사는 110건에 이른다. “광주·전남 폭우로 180억원 피해입어”(7/14), “온난화가 만든 난폭한 장마, 서울 강우량 1940년 이후 최대, 전국 곳곳 침수 피해”(7/15) 등 재난 중계를 열심히 했다.

장마는 매년 이맘 때면 으레 겪는 것이고 폭우로 인한 피해 또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 피해 유형도 해마다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장마전선이 고기압에 막혀 북상하지 못하고 심술을 부린 결과가 장대비의 원인”이라는 해설기사

비정규직法·쌍용車 파업·집중폭우 보도 정확한 문제점 지적인 代案기사 안보여

한겨레신문은 무려 197건의 기사를 게재한 것만 보아도 사안의 중요성을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여야 간의 기세싸움, 몸싸움, 실직자의 애달픈 사연, 해고대란의 파장 등 책임 따지기와 해직사태의 과대포장을 중계하는 수준이었을 뿐 정작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비정규직 협상에 정규직 대표 노총은 왜 끌어들었나”(7/3 사설), “대안 없다 뉘 놓고 있던 공기업, 비정규직 해고지옥 됐다”(7/4), “7월 단기해고대란” 아닌 ‘중장기 고용불황’ 예상”(7/8), “민주당 존재 이유가 국회 마비시키는 것인가”(7/15 사설) 등으로 상황 설명과 원인규명은 어느 정도 충실했다.

그리고 해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노력 흔적은 보인다. “법 시행을 2년 늦추는 미봉책이라도 세울 수밖에 없다”(7/2 사설), “대통령의 재정경제에 관한 긴급명령권 발동해서 최악의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7/3 시론, 기고자 이창수), “비정규직·실업, ‘양자택일’ 피하려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돼야 한다”(7/7 칼럼 ‘태평로’) 등이다. 그러나 하나마나한 원론의 전개에 그친 느낌이다. 외부 기고자의 글을 받으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근본적 대처방안이 제시된 글을 받았어야 했다.

왜 ‘조·중·동’이나, ‘동·조·중’은 아니더라도 ‘조·동·중’은 돼야 하지 않느냐는 불만을 갖고 있는 동아일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D-6 비정규직법 파행 재촉하는 4대요소”(6/25)에서 무소신 노동부와 정치권 갈등을 비난한데 이어 “비정규직 550만명을 언제까지 우롱할 건가”라는 제하의 사설(7/2)에서 ‘2년반전 입법부터의 무책임’과 ‘법 시행 즉각 유예하고 근본적 해법 찾아야’ 한다면서 “노동부에 속속 접수되는 ‘해고 날벼락’”(7/16)을 상황중계 했지만 정작 해법을 찾는 데는 등한했다.

다른 신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기사를 쏟아낸 한겨레신문은 “전국자치단체 비정규직 해고사태 없어”(7/2) 등 한가한 기사로 도배를 하면서 “비정규직 해법 ‘사회적 타협’ 뿐이다”(7/4)라는 뉴스분석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법으

는 작년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 써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굳이 아까운 지면을 축낼 필요가 없다. 또 의미도 없다.

기상청의 부실한 예보, 배수시스템의 허점, 배수로의 비과학적 건설, 예산의 태부족 등 재난대응 체제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 획기적인 재난대응 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해 물난리 기사를 더 쓰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도록 거듭거듭 촉구하는 것이 진정한 언론의 사명일 것이다. 재난은 자연이 낸다고 하더라도 예방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IT기반의 풍수해 예측 및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부산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 “찾아진 기상이변 방재시스템 시급하다”로 할 일을 다 했다는 태도다. 동아일보도 같은 기간 115건의 기사를 다루면서도 앞날을 걱정하는 모습은 “도깨비 날씨, 대응 인프라 강화해야 한다”(7/15)는 사설을 통해 정부의 중장기 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고작이었다.

한겨레신문은 쌍용자동차 파업에 관련한 기사를 5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138건이나 게재해 다른 신문보다 월등히 많은 지면을 할애했으면서도 집중호우 관련기사는 20건(7/5~18)에 불과했다. 극소수 파업노동자의 눈물겨운 투쟁에 비하면 전국 대다수 국민의 안전과 피해는 그다지 신경에 차지 않았나 보다. “개통 앞둔 서울~춘천 고속도 호우에 와르르”(7/10)가 돌보이는 기사인데 동원된 어휘가 사실 이상을 연상케 한다.

이밖에 개성공단 문제, 아직도 소식이 감감한 인질 문제, 쌍용자동차 파업 문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파라치’ 제도와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명목의 담배 값 인상 등 정책당국자의 소박한 기대 정책에 대한 문제 등 언론이 앞장서 지적하고 분석하여 해법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사안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독자들은 그러한 언론기능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 ‘대한언론’의 쓴 소리를 달게 받아들여 다만 몇 가지 사안에서라도 기대에 부응해 준다면 ‘신문 한달 치가 피자 한 판과 맞먹어서야 되겠느냐’며 오히려 독자가 앞장서 구독료 인상 캠페인을 벌일지 누가 알겠는가.

국회의원 税金낭비 속시원히 告發

이재오 전 의원이 요즘 바쁘다고 한다. 대학 특강 다니라, 지역구 챙기라, 여의도 입성 준비하라. 오죽이나 바쁘겠는가.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런데 그가 대학 특강하러 대학강단을 방문했을 때를 비롯해, 그의 뒤에는 항상 개인비서가 따라 다녔다고 한다.

뭐 전직 의원에다 이 정권 제 2인자 소리까지 듣고 있는 입장에서 개인비서가 따라 다닌다는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한꺼풀 속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다. 만약에 그의 개인비서 월급을 국민 여러분이 낸 세금에서 부담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냥 묵인하기엔 좀 찜찜할 것 같지 않은가.

KBS가 지난 7월 14일 밤 10시에 내보낸 시사기획 '썸'은 국회의원들의 세금 낭비 백태를 시원하게, 그리고 신랄하게 고발했다. 가장 손쉬운 세금 낭비(아니 착취라고 해야 하나)의 실례는 자기 친아들에다 딸, 조카, 동생 등 친인척을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채용하는 일이다. 김충조, 백성운, 김을동, 이정선, 박은수, 구상찬, 정양석 의원이 그들이다.

회는 하라는 일은 않고, 농성에다 여야간 싸움질이나 열심히 했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서민들의 생존을 위해 과연 무슨 일을 했던가.

이러면서 그들은 정치자금법을 더 완화해 자금모금을 더 확대하려 하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국회가 앞으로도 얼마만큼 염치없는 행동을 계속해서 할 것인지 지켜 볼 일이다.

3김의 인기는 언제까지 가나

DJ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제 3김시대도 서서히 막이 내리는구나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아직도 3김은 여전히 살아서 청취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3김을 만나실 분들은 MBC라디오의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매일밤 8시 10분) 한 코너인 3김퀴즈를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란다.

3김퀴즈 홈페이지에 등록된 네티즌의 글이 7월 15일자로 300만건을 넘어 섰다고 한다. 라디오·텔레비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고 지금도 하루 평균 2,500여건의 퀴즈 정답응모 등 청취자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단다.

아들·딸 등 친인척 보좌관 채용실태 밝혀 「3金」행태 풍자한 라디오 개그프로 신선



신 대근

- 본보 편집위원
- 전 MBC보도제작국장
- 전 충주·대구 MBC사장

국민 신뢰를 잃은
국회가 앞으로도
염치없는 행동을
계속해서 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임동규 의원은 친절하게도 자기의 비서관을 나라의 세금으로 월급받게 하고, 이재오 전 의원 비서로 수행시켰다가 망신을 샀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이재오 전 의원에게도 큰 누가 된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알고도 그랬을까. 이재오 씨는 미국 가서 1년여 동안 선진 의회제도를 연구했다면서 이런 것을 양심으로 받아 들였던 말인가. 이렇고도 도덕성 운운할 수 있을까. 정말이지 실망이다.

그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면 실망도 안했겠지만 말이다. 지난 6월 영국에서는 세비 부당청구건으로 정가가 떠들썩했고, 급기야는 하원 의장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미국에서는 아예 친인척의 보좌관 채용을 금지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보좌관 채용은 가능하지만, 임금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우리도 선진국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한가지 의원들의 세금 낭비 행태는 의원 외교로 포장된 위유에서 잘 나타난다. KBS의 카메라는 집요하게도 국회 국방위원들의 7박9일간 터키방문 현장을 추적한다. 이스탄불을 비롯 관광지를 부부동반으로 돌아다니는 의원들은 귀국한 뒤에 인천공항에서 "시간이 하도 빡빡하게 짜여져 관광할 시간은 전혀 없었다"고 태연히 인터뷰에 응한다.

거짓말이나 하지 말았으면 덜 밉지. 여기서 시청자, 아니 국민들은 우리가 낸 세금이 허망하게 줄줄 새어 나가는 현장을 실감하게 된다. 이들을 소환하는 방법은 없을까. 18대 국

3김퀴즈는 진행자인 최양락이 김종필 전 총리를 말고, 배철수가 YS와 DJ의 성대묘사를 통해 3김이 퀴즈를 푸는 시사 풍자 개그 프로다. 막무가내로 우기는 YS와 눈치의 달인인 JP, 그리고 아는건 많지만 늘 정답 근처만 맴도는 DJ 등 3김을 풍자하면서 청취자들의 웃음을 끌어내는 진행자들의 숨씨가 들을 만하다.

지난달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의 낙마를 즈음한 날 퀴즈 내용은 청취자들을 웃기면서 세태를 신랄하게 풍자한다. 사회자의 질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요직의 이동이 있을 때 떠도는 소문을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하마평)" YS가 즉각 답변한다. "증답, 도마. 맞제?" "근데 처음부터 안 한다가지도마 위엔 왜 올라가서" 천 후보를 빗댄 답변이다.

JP가 곧이어 등장한다. "내 사전엔 은퇴란 없어"라고 하자, YS는 "난 아예 사전이 없어"라고 받아친다. 듣고 있던 DJ의 답변은 "옛날에 하마비라고 있었지요, 정답에 하마가 들어가지요, 정답, 하마설." 이처럼 3김은 매번 정답 언저리에서 틀리곤한다.

이 프로그램 제작진은 "보기드문 정치풍자 개그라 청취자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면서 "3김이 모두 연로해 만약의 경우 이 프로그램의 계속 여부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시대를 좌지우지했던 3김, 나름대로 공과가 많지만 세분 모두 오래 오래 장수해 퀴즈프로를 통해서나마 가까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울진 응봉산서 단합다져

본회 산악회 하반기 첫 山行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안종우)는 지난달 7월 16일 경북 울진의 응봉산(해발 999m)에서 하반기 첫 산행을 가졌다.

응봉산 아래 위치한 덕구온천에서 1박후 초여름 산행에는 안종우 회장, 지용우·김영효 고문, 정운중 감사 등 회우 13명이 참석했다.

이 날 새벽 덕구 계곡따라 전설이 담긴 형제폭포, 옥류대, 선녀탕, 용소 등 자연의 신비와 풍광을 만끽, 3시간여의 응봉산 산행을 하며 산우들의 단합과 우의를 다졌다.

한편 김영효 본회 이사는 산악회 발전을 위해 금일봉을 찬조, 일행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덕구 계곡의 용소폭포에서 땀을 식히는 일행들.

北韓 관련 ‘人權’ 방송보도 문제점 많다

1.배 경

금강산 관광 도중 박왕자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살해되는 비극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었다. 박왕자씨 피살 사건은 북한의 당국자들이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그 ‘인명 경시’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공정언론시민연대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고 박왕자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 1주년에 즈음해, 그 동안 북한과 관계된 인권 문제들에 있어 한국의 언론은 과연 어떤 보도 태도를 취했는지 총체적으로 돌아보는 종합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그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 도중 총격 피살된 박왕자씨 사건과 최근에 발생한 개성공단 유모씨 억류 사건을 들 수 있다.

2. 금강산 피살 사건 보도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경우 관련 보도기사 수는 KBS 63건, MBC 61건, SBS 59건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사건의 책임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KBS와 SBS, MBC 모두 북한의 책임을 지적했지만, 동시에 남한 혹은 현대아산측의 책임론을 함께 거론하였다. 특히 MBC(북측 8건, 남측 4건, 양측 1건)는 KBS, SBS에 비해 북측의 책임을 묻는 기사와 남측의 책임을 묻는 기사의 비율이 2 대 1이었다. KBS

4.5대1(북측 9건, 남측 1건, 양측 1건), SBS 3대1(북측 9건, 남측 3건, 양측 2건)인 것과 대조적이었다.

사태해결의 해법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도 MBC는 남측의 신중한 대응을 당부하는 태도가 강조됐다. KBS는 북측 사과 및 진상규명이 11건, 남측의 신중 대응 0건, 양측요구 2건이었고, SBS는 북측사과 및 진상규명 11건, 남측의 신중대응 3건, 양측 요구 1건이었다. KBS는 관광객 피살의 책임을 북한측에 있음을 확실히 했으며, SBS도 북한의 잘못임을 강조했다.

반면 MBC는 북측의 명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남측에 책임을 묻는 기사를 상당히 편재했다. 북측사과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보도는 10건이었으나, 이의 절반에 가까운 4건의 기사가 남측의 신중대응을 요구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한겨레신문·경향신문 등 5대 일간지의 보도태도도 차이를 보였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관련 사실은 조선일보 9건, 중앙일보 15건, 동아일보 12건, 한겨레신문 9건, 경향신문 10건이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북측의 책임이라는 입장이 압도적이었다. 남측의 책임은 전무하거나 미미하다. (중앙 남측 3건 양측 0건, 동아 남측 1건 양측 3

공정언론 시민연대 모니터링 보고서

건, 조선은 남측과 양측 전무)

이에 반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남측의 책임에 무게를 뒀다. 한겨레는 북측책임 2건 남측책임 6건 양측책임 2건, 경향신문은 북측책임 4건 남측책임 2건 양측책임 1건이었다. 특히 한겨레는 북측 책임보다 남측 책임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

사태해결에 대해서도 조선(9건)·중앙(8건)·동아(7건)는 북측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우선했지만, 한겨레신문은 북측의 사과(3건)보다도 남측의 신중한 대응(5건)이나 당국자간 협력을 강조하

주문했다.

*근로자 유씨 사건에 대한 단독보도 수

방 송 사	KBS	MBC	SBS
단독보도	7	1	3

*美여기자 납치에 대한 단독 보도 수

방 송 사	KBS	MBC	SBS	CNN
단독보도	7	3	6	12



박왕자씨가 북한측 총격으로 사망한 금강산 현장.

금강산 피살사건등 北韓책임 부각 소극적 自國民보호대책 촉구한 美언론과 큰차이

는 사실을 훨씬 높은 비중으로 다뤘고, 경향신문은 북측의 사과(4건)도 중요하지만 남측의 신중한 대응(2건) 등도 못지 않게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칼럼에서도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적 성향의 신문들은 평균 12건(조선 9건 중앙 16건 동아 13건)의 칼럼을 통해 북측의 책임을 물었지만, 한겨레와 경향은 동일 기간 동안 평균 6건(한겨레 3건 경향 10건)정도였다.

사태의 책임을 놓고 조선일보는 북측의 책임이 8건, 동아일보는 7건인데 반해, 한겨레신문은 2건, 경향신문은 6건이 ‘남측의 책임’을 강조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3. 개성공단 근로자 유모씨 관련 보도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

개성공단 근로자 유모씨를 다룬 보도에서도 북측의 일방적인 태도나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보도가 미흡했다. KBS는 면담 석방이 우선 이루어져야 함에 주되게 기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MBC와 SBS의 경우에는 면담 석방을 우선하기보다 남측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는 방향의 기사를 더욱 많이 다루고 있다

5대 일간지 또한 조선·중앙·동아는 유씨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한겨레나 경향은 남측의 신중 대응을

미국의 CNN이 자국 국민의 억류 기사를 12회 단독보도한 것과 비교한다면,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에 대한 한국 방송사의 단독보도가 얼마나 적었는지 알 수 있다. 더욱이 모니터 기간을 5월 31일 이후 재판이 이뤄졌던 점을 생각하면 그 수치는 더 많아질 텐데 인권을 내세우는 언론이 정작 유모씨 문제엔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줬다.

5대 일간지는 억류 근로자의 면담 및 석방, 이같은 사태의 배경 등을 놓고 분석과 해법이 차이를 나타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북측의 일방적 행보를 비판하면서 억류 근로자의 인권을 우선순위에 놓았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남측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는 입장이 우세했다.

특히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유모씨 문제에 대해 단 1건의 외부 칼럼도 신지 않음으로써 사안에 대한 자체의 관심도와 중요도가 매우 낮음을 보여줬다

4. 결 론

-금강산 피살 사건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태도를 모니터링한 결과 주목이 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MBC는 북측의 명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남측에 책임을 묻는 기사를 상당히 편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응 방향에 있어서도 MBC는 남측의 신중 대응을 주문하는 기사를 상당히 편재하고 있다. 이 같은 MBC의 보도 태도는 북측의 명백한 잘못으로 빚어진 사건에 대해 타 방송사와 사뭇 다른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권적 시각이 더 적게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둘째,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한겨레신문·경향신문 5개 일간지 모니터링 결과, 사태의 책임에서 한겨레신문이 사태의 책임을 북측보다 남측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사태의 해결 및 해법에 있어서도 한겨레신문은 북측의 사과와 진상규명보다 남측의 신중한 대응에 훨씬 큰 무게를 두고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사건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태도를 모니터링한 결과 주목이 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 3사의 단독보도 수가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MBC와 SBS는 KBS에 비해 그 양이 훨씬 적다. 더구나 동일 사안으로 볼 수 있는 미국 여기자 억류 사건에 대한 보도보다도 더 적은 보도량을 보이고 있다.

둘째, 사태의 해결 및 해법과 관련해서도 KBS는 면담 석방이 우선 이루어져야 함에 주되게 기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MBC와 SBS의 경우에는 면담 석방을 우선하기 보다 남측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는 방향의 기사를 더욱 많이 다루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의 인권을 앞세우는 시각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한겨레신문·경향신문 5개 일간지 모니터링 결과, 한겨레신문의 경우 남측에 신중 대응을 주문하는 데 훨씬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칼럼에 있어서도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단 한 건의 외부 칼럼도 신지 않음으로써 사안에 대해 관심도와 중요도를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권을 강조하는 방송언론이 북한에서 사실당한 박왕자씨, 100일넘게 개성공단에 억류되어있는 유씨의 인권에는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사례를 이와 유사한 미국 여기자 억류사건을 비교할 때, 자국민 보호를 강조하며 강력한 대안 마련등을 촉구했던 미국 언론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언론사들은 이들의 인권문제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 하루빨리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진상규명과 함께 억류된 자국민의 인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리=이동훈
공정언론 시민연대 정책실장

사이버 테러 차단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와 인터넷에 삶의 많은 부분을 맡기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 ‘디도스’ 공격은 우리들에게 인터넷 안전망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비책을 요구하면서 경각심을 안겨 주었습니다.

‘디도스’는 무엇이며 ‘좀비 PC’란 무엇인지, 이들의 공격수법은 어떤 것이며 대응책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디도스’란 무엇인가?

‘디도스’는 ‘Distribute Denial of Service’의 약자 [DDoS]입니다. ‘디도스’는 인터넷 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투해서 정보를 빼내거나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해킹수법의 하나로서 여러 대의 노에 컴퓨터를 한꺼번에 작동시켜 같은 시간에 같은 목표의 특정 컴퓨터 사이트를 공격하여 특정 서버가 다른 정당한 신호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대량의 접속을 유발해 해당 컴퓨터를 마비시키는 수법으로서 한 전화번호에 집중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면 일시 불통되는 현상이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갑자기 다수의 차량을 몰려들도록 해서 선의의 운전자들이 톨게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일반 이용자의 정상접속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심하면 주 컴퓨터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좀비 PC’란 무엇인가?

해커가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기 위해 악성 코드(바이러스)로 감염시킨 PC를 말합니다. 해커가 이들 PC를 동원,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대량의 접속 신호를 보내 해당 사이트를 다운시키는데 사용되는 PC를 말합니다.

‘좀비 PC’들은 공격자가 미리 설정한 시간과 공격 대상에 대해 일제히 공격에 나서며 이번 ‘디도스’ 1차 공격에서는 23,000여대, 2차 공격에서는 16,000여대에 달하는 ‘좀비 PC’가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격대상은?

7월 7일 오후 6시 청와대, 국방부, 육군, 외환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12개 사이트, 미국 14개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날인 7월 8일 오후 6시에는 안철수연구소, 이스트소프트, 다음메일, 우리은행 등 10개의 사이트가 공격을 받았으며 사흘째인 7월 9일 오후 6시부터는 3차로 조선닷컴, 육군 등 총 7개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좀비 PC’들이 한 대당 1초에 수백~수천 번씩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접속을 시도하는 컴퓨터가 수천~수만 대에 이르면,

각 사이트는 엄청난 트래픽(Traffic)을 감당하지 못해 다운되고 말았습니다.

같은 시각 백악관과 국무부 등 미국 주요 기관 사이트들도 비슷한 공격을 받았습니

누가 무엇을 노렸는가?

당국은 아직도 범인이 누구인지, 무엇을 노리고 있었는지 정확히 밝



한 중 광

- 본회 회우
- 전 KBS 유럽 총국장
- 現 한국재해구호협회 상임이사

고 이와 연결되는 통신체계와 주요 유형 자산 운영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2차 목표는 정부 지도자와 국민들의 정보 판단 능력을 떨어뜨리고 국가·사회 기능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켜 전쟁 수행 능력과 전투 의지를 파탄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사이버 테러는 본격적인 전쟁에 나서기 앞선

아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우회 URL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악성코드 자체가 ‘디도스’ 공격 대상을 내장하고 있고, 공격자가 실시간으로 악성코드를 제어하거나 공격대상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회 도로를 만들 경우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응 방법은 임시방편입니다. 악성코드의 변종이나 다른 종류의 악성코드에 감염된 PC가 나타난다면 또 다른 차원의 공격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더욱 철저한 인터넷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처럼 청와대에 사이버대응 보좌관직을 신설하고, 사이버테러를 총괄 담당하는 민·군 혼성대응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수칙 10계명

안철수연구소는 DDoS에 이용되는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PC 사용자는 다음의 보안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윈도 운영체제는 최신 보안 패치를 모두 적용한다.

둘째, 인터넷 로그인 계정의 패스워드를 자주 변경하고, 영문/숫자/특수문자 조합으로 6자리 이상으로 설정한다. 로그인 ID와 패스워드를 동일하게 설정하지 않는다.

셋째, 웹 서핑 때 액티브X ‘보안경고’ 창이 뜰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만 프로그램 설치에 동의하는 ‘예’를 클릭한다. 잘 모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는 경고가 나오면 ‘예’ ‘아니오’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말고 창을 닫는다.

넷째, 이메일 확인시 발신인이 불분명하거나 수상한 첨부 파일이 있는 것은 모두 삭제한다.

다섯째, 메신저 프로그램 사용시 메시지를 통해 URL이나 파일이 첨부돼올 경우 함부로 클릭하거나 실행하지 않는다.

여섯째, PtoP 프로그램 사용시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는 반드시 보안 제품으로 검사한 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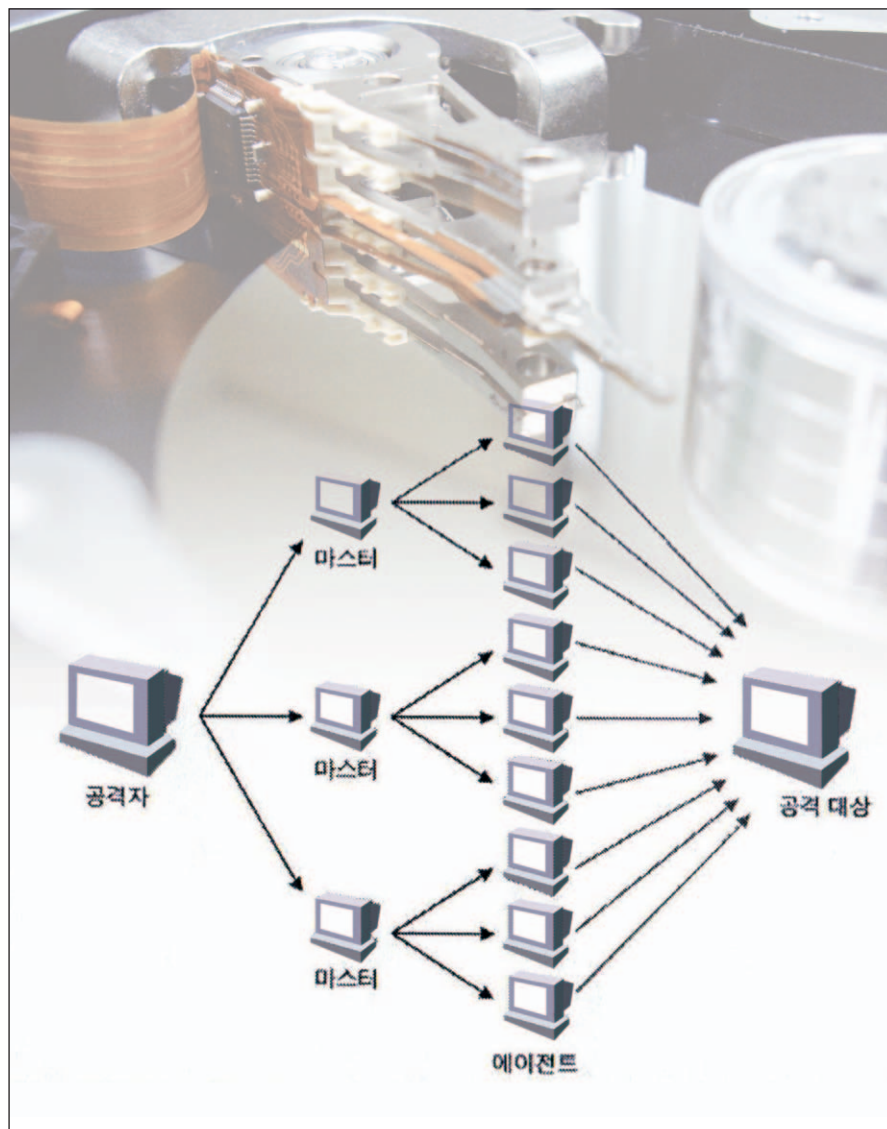
일곱째,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여덟째, 외부 침입자가 나의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유 권한은 ‘읽기’로 설정해

놓고 사용한 후에는 공유를 해제한다.

아홉째, V3 등 신뢰할 수 있는 백신을 설치하면 모든 악성코드를 예방·진단·치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안 제품은 설치 후 항상 최신 버전의 엔진으로 유지하고 부팅 후 보안 제품이 자동 업데이트 되도록 하고 시스템 감시 기능이 항상 작동하도록 설정한다.



디도스공격 누가 뭘 노렸는지 아직도 못밝혀 PC사용자 보안 수칙 잘지켜 사용해야 안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최근 청와대 등 국내 사이트를 공격한 분산서비스거부(DDoS) 사이버 테러에 사용된 ‘공격명령 서버’가 미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서버가 미국에 있다고 해커가 미국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이버 테러의 1차 목표는 적 컴퓨터 및 전산망 내부자료 파괴, 왜곡, 탈취, 접근차단, 업무속도 저하, 처리절차 조작 및 변경, 그리

탐색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책

‘디도스’ 공격에 대해 여러 가지 대응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는 ‘안티 디도스’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한은행의 경우 ‘디도스’ 공격을 받았지만 최근 백본망에 ‘디도스’ 공격을 차단하는 ‘안티 디도스’ 시스템을 구축해 놓

藝人 촬영 심포 없는 열정... 움직이는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1세대 鄭範泰 원로 회우(81).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집념으로 반세기를 카메라와 함께 살았다. 40여 년 동안 조선일보, 한국일보 사진부장을 거쳐 1996년 세계일보에서 기자직을 마감했다. 그 동안 수많은 특종사진과 저서를 남기며 '자진모리(아주 빠르게 :Presto)' 가락으로 숨가쁘게 살았다. 이제 그의 렌즈가 응시하는 피사체의 대상은 뉴스의 현장에서 藝人들로 바뀌었을 뿐, 아직도 쟁쟁한 현역이다. 지난 7월 21일 언론인회 사무실에서 만나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인터뷰를 했다.

카메라와 함께 한 반세기

정 회우를 처음 만난 것은 5년 전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언론인단체 세미나에서다. 필자의 저서 <판소리답사기행>(1994. 민예원)을 관심있게 읽었다며 <명인·명창>(2002. 깊은 샘) 참고자료에도 올랐다.

그는 1956년 결성된 사진 그룹 '新線會'를 중심으로 한국 리얼리즘 사진을 개척해 왔다. 2006년에는 한국 근현대사의 현장을 기록하고 자신의 작품 세계를 총망라한 <정범태 사진집 1950-2000>(눈빛출판사)을 출간했다. 사진집 출간에 맞춰 '정범태의 사진 인생 50년展'을 여는 등 한국 사진사의 한 획을 정리했다.

예인들의 사진과 함께 발로 취재해 쓴 저서도 수두룩하다. <한국의 명무>(한국일보사), <춤과 그 사람>(전10권, 열화당),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전통 예인 백 사람>(이규원 공저, 현암사), <한국명인·명창전>(문예원), <명인·명창>(깊은 샘) 등의 저작은 살아 있는 사진과 맞닿아 있는 글의 결실이다.

"50여 명 藝人 선정 목록치 않아"

정범태 원로회우의 열정엔 심포가 없다. 팔순에 접어들었으니 이제는 좀 쉬만도 한데 <우리시대를 움직인 광대>를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명인 명창과 춤꾼 등 우리시대를 움직인 광대 50여 명을 선정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것. 하지만 "예술성 짙고 흠결 없는 예인들을 선정하는 작업도 목록치 않다"고 말한다. 현재 안숙선 이춘희 원장현 이광수 등 일부 선정한 예인들의 자료정리를 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한해 동안 활동했던 춤 공연을 모아 <한국무용연감>을 만드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며 의욕을 불태운다. 다만 진행 템포를 자진모리가락에서 중모리(보통 빠르게 : Moderato)'가락으로 한 템포 늦췄을 뿐이다.

-춤과 소리, 민속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1946년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리얼리즘 사진의 길을 열면서 맨 처음 찍은 게 춤 사진이었다. 서대문 박영천 인왕산 선바위 옆 국사당에서 무속 음악을 연주하던 민속음악가 이충성(송파산대놀이 인간문화재)씨를 만난 것이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13>

회우초대석

鄭範泰

한국창작사진가협회 초대회장
조선일보, 한국일보 사진부장
대한민국 사진전 심사위원장

인터뷰 글·사진 /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한국 프레스센터 앞에서 활짝 웃으며 포즈를 취한 정범태 회우.

46년부터 카메라잡아 리얼리즘 사진 새길 개척... 춤 歷史현장 수많은 특종... 요즘은 '우리 시대를 움직인'

계기가 됐다. 판소리 또한 그 시절 국극 사 장영찬 명창을 알고 난 뒤 김소희, 박귀희, 김여란 등 여류명창 들과 교류하면서 빠져들었다. 임방울 명창은 1955년 창경원 가설무대에서 소리를 할 때 인사를 후 자주 만났으며 그의 공연사진을 보유한 것은 내가 유일하다." 정 회우는 그 뒤 명인 명창과 춤꾼들의 사진은 줄잡아 100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승무 인간문화재 이애주씨는 초등학교 시절, 엄마 손 잡고 춤 배울 때부터 아는 사이다. 그 인연은 지난해 11월 '한·중·일의 몸짓' 무대까지 이어졌다.

음악과 혼이 느껴지는 사진

-춤사위를 포착하기가 어렵지 않은가요?

"藝人들의 사진은 표정이 아니라, 춤과 소리를 분석해 촬영한다." 그가 포착한 표정 너머로 음악이 들리고 혼이 느껴지는 이유다. 사진 뿐 아니라 공옥진의 '병신춤'을 '해학춤'이라 이름을 바꾸고, 춤의 순환글 용어인 '지춤'을 발굴한 것도

그다.

- '귀명창' 수준은 넘으실 것 같은데요?

"60여 년 넘게 명창들의 공연장을 찾아다니다 보니 '귀명창' 소리는 듣는다. 소리꾼이 단전에서 뽐아 올린 '통성'인지, 기교에 치우쳐 흘러내리는 '노랑목'인지 들어 보면 안다." 김소희 명창은 공연이 있을 때마다 "정 선생, 귀 좀 빌립시다" 하며 초청할 정도로 전문가 수준이다. 그는 판소리 명창들의 계보를 굴비처럼 훑어내고 있으며 KBS1 FM '흥겨운 한 마당'을 1년 동안 진행한 '움직이는 국악 사전'이다.

7년 추적 끝에 '당골 계보' 확인

-소리꾼들을 취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6·25 피난시절 부산에서 여성국극단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다가 징집됐다. 공병반의 임무를 사진으로 기록하며 중공군 작전지역까지 들어갔다가 죽을 고비

를 몇 번 넘기기도 했다. 그 뒤 1951년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남원 지리산 공비 토벌작전사령부의 문관 자격으로 사진촬영을 했다. 공비들은 대개 한밤에 마을로 내려와 식량 등을 탈취한 뒤 산으로 올라가 현장사진을 포착하기란 여간 어려웠게 아니다. 그래서 낮에는 할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런 가운데 서울 자택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사진자료들이 소실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낮이면 카메라를 메고 남원, 구례, 담양, 곡성 등 소리꾼들을 찾아 취재를 했다."

그는 세습무가 출신의 명창 鄭興順(1858~1942)의 가계를 추적하면서 당골 계보를 확인하는 개가를 올렸다. 상경한 뒤 신문사 전형을 거쳐 사진기자가 된 뒤에도 틈틈이 곡성을 내려가 7년 만에 마무리하는 집념을 보였다. 당골(무당)들은 계급내혼을 하기 때문에 그 족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당골 집안에서 소리꾼 한 사람 배출하면 출세의 지름길임을 알아냈다. 소리가 안 되면 기악, 기악조차 안

국악사전 ‘귀名唱’



1996년 가을, 서울 대학로 ‘두레’ 극장에서 열린 ‘판소리명창 한바탕’ 공연 후 찍은 기념 사진. 왼쪽부터 천대용 교수, 김성권 교수, 박동진 명창, 정광수 명창, 한애순 명창, 주수봉 교수, 진옥섭 기획담당, 한승호 명창, 정범태 회우, 김운태 장교.



정범태 회우가 찍은 1960년 4월 18일 밤 9시 30분경 청계천 4가에서의 고려대학생 피습 장면.

· 소리 분석 촬영 ‘광대’ 출간 준비

되면 놀이꾼으로 대를 이어 살았다. 인터뷰를 하면서 말씀에는 힘이 넘치고 소리꾼의 연보와 계보 등을 줄줄이 꿰고 있는 기억력이 놀랍다

특종사진으로 1년 옥살이도

-이름을 떨친 것은 역사의 현장을 기록한 뉴스 사진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시절에 찍은 ‘결정적 순간’이다. 경기도등군법재판소에서 중년의 여죄수가 판사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서 있는 데 갑자기 방청석에서 서너 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야장야장 걸어와 죄수에게 안기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다.”

이 장면을 지켜 본 판사는 그 엄마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였던 사람을 끌고 온 것인지, 아니면 엄마 품에 안기는 아이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다. 그 사진은 ‘아사히신문’ 국제살롱에서 10결상을 수상하고 세계 사진연감에 수록됐다.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사진은 쿠데타로 전국에 계엄이 발령되었을 때 강화도 전 등사에서 군인들이 놀러온 행락객들에게 폭력을 썼던 장면을 찍어 사회면 머리로 올려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반공법 위반이라는 족쇄가 채워지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몇 년에 맞먹는 공부를 했다”고 덧 붙인다. 정 회우는 1960년 1월 서울역 귀성객 압사사고와 그 해 4월 18일 고대생 피습사건 등 수 많은 특종으로 역사를 기록한 산 증인이다.

우리 시대를 이끈 ‘실버의 表象’

- ‘독침’이란 별명은 누가 붙였는지요?
“성깔이 대단한데다 젊은 혈기로 원칙에 어긋나면 참지 못했다. 편집국장과 충돌하여 신문사를 옮기기도 했다. 타협을 모르던 성깔도 세월에 마모되어 많이 수그러졌다.”

-정 선생님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나이 80줄에 접어드니 사진집도 이내 내주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내 작품 25점을 구매해 갔다. 또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에서 내 사진 15점을 소장하고 전국 순회 전시를 하고 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술 이야기 ②



金泰運 회우

술의 시초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골프’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아무도 모른다.

술의 기원, 술과 인간의 접촉은 태고적 언제부터였을까. 아무도 모른다.

골프라는 게임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공교롭게도 ‘골프금지령’이 선포되고부터다.

1457년.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2세’는 “숙적 잉글랜드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비상사국에 젊은이들이 무술에는 소홀하고 골프에만 열중하고 있으니 차후 골프는 일절 금지한다.”

그해 3월 5일 의회 의결을 거쳐 전국에 ‘골프금지령’이 왕명으로 포고된 것이다. 따라서 골프는 ‘골프금지령’ 이전부터 크게 성행했던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술도 마찬가지다. 한가지 성문화된 것이 있다면 구약성서(舊約聖書) 뿐이다. 창세기(創世記)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노아는 포도원을 가꾸는 첫 농군이 되었는데, 하루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창세기 9-20).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10대째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방주(方舟)를 띄운 것으로 유명한데, 하느님은 그에게 포도 재배법과, 와인 제조법을 알려주고 있다.

술의 역사, 글썄 얼마나 될까. 아마도 기원전 5000년 경에는 술이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술은 크게 증류주(蒸溜酒)와 양조주(釀造酒)로 나뉘어진다.

그 중에서도 와인이나 맥주같은 양조주의 역사는 더 오래고, 위스키로 대표되는 증류주는 그 역사가 양조주에 비해 바가 못된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히기 전날, ‘최후의 만찬’에서 붉은 포도주 잔을 들고 “내 피다, 받아 마시려”고 제자들에게 말한 것은 태고적부터 술은 신(神)과

함께 있었던 것을 말해 준다.

한편 인간(人間)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증류주의 역사.

그 탄생은 12~13세기로 추정되는데 스코틀랜드의 위스키다.

그 위스키의 역사는 갖가지 험난한 역사의 언덕을 넘어 세금(税金)과의 싸움, 숙적 잉글랜드와의 투쟁 등 험난 속의 명품이었다.

한국의 약주·소주, 중국의 노주(老酒)·백주(白酒), 일본의 사케, 영국의 위스키, 독일의 맥주, 프랑스의 포도주·브랜디, 러시아의 보드카, 멕시코의 데킬라 등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술은 그 민족과 맥을 같이 하며 그 역사를 다 함께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가 탄생하고 나서 줄곧 사람들은 술과 더불어 슬픔도 기쁨도 노여움도 그리고 울고 웃음을 같이 해 왔다.

술의 시초.

그것은 하느님에 의해 만들어졌든 아니면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든, 그리고 자연 발생적으로 인간 사회에 녹아 들었든간에 술은 ‘위대한 위치’를 한번도 내놓은 일이 없다.

인류 사회는 그것을 용납했고 흔쾌히 받아 들였던 것이다.

술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그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삼았고, 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그 민족은 자긍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한 잔의 막걸리, 한 잔의 소주와 와인, 그것은 그 나라 문화와 예술, 그리고 정치가 그 속에 녹아 들었고 역사는 술과 더불어 변천해 왔다.

술-

그것은 그 민족의 최량 최고의 친구였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자리해 왔다.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4]

〈전 경향신문 사회부장, 매일경제부국장 전 제주파라다이스 골프클럽 사장〉

“5시면 일어나 연희동 뒷산을 산책한 뒤 우편물 등을 정리한다. 공연과 사진전람회 초청 받아 가끔 지방나들이도 한다. 독서도 하고 자료도 챙기다가 2~3시쯤 잠자리에 든다.”

그는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고 약도 먹지 않는다고 한다. 가진 것이 없으니 돈 관리에 신경 쓸 일 없어 편하다는 것. 담배는 옥살이를 하며 끊었고, 한때 배갈 세 병까지 마시던 술도 멀리한다. “최선을 다해 살았기에 후회는 없다”고 말한다.

대화가 가족관계에 이르자 얼굴에 그늘이 드리운다. 56년 동안 고락을 함께

해온 부인 張蘭姬 여사(78)가 부쩍 거동이 불편해져 걱정된다고 한다. 연세대를 나와 가톨릭 신부수업을 받던 4대 독자 아들이 스물 여덟 꽃다운 나이에 교통사고로 가슴에 먼저 묻어 “잊으며 산다”며 눈시울을 붉힌다. 그 이후 가족 모두 가톨릭 의과대학에 사후 ‘시신기증 등록’을 했다. 큰 딸 楊珍(46) 씨는 두 아이의 엄마다. 서양화를 전공한 둘째 딸 楊兒(34) 씨는 아직 미혼으로 대학 강단에 서며 방송활동을 한다.

지치지 않는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피사체처럼 선명한 삶을 살아가는 그는 우리시대 ‘실버의 表象’이다.

祝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착공



성공으로 통하는 도시 충남도청 이전신도시로 오십시오!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사람과 기관이 몰리는 최적의 투자 요지!

- 행정의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산업·자연환경의 복합기능 신도시
- 도청(도의회), 교육청, 경찰청 등 140여개 기관 동시 입주
- 「국제문화교육 특구」 지정 (전국 유수의 명문학교 설립)
- 산·학·연 첨단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 용봉산·삽교천이 어우러진 최적의 자연생태도시 조성

황해경제자유구역

태안기업도시

관광산업의 중심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휴양관광도시의 비전!

- 30여개의 해수욕장, 덕산·용봉산·계룡산 등 곳곳의 등산코스, 안면도국제꽃박람회, 보령머드 축제 수덕사, 덕산온천관광지
- 백제역사재현단지, 30여곳의 기능성 박물관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관광휴양 중심지

**강한충남의
5대강점**

- 서울에서 1시간대 진입, 사통팔달의 교통망
-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 GRDP 성장률 3년 연속 전국 1위
- 우리나라 4대 핵심산업의 집적지
- 자동차,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 투자기업들이 인정한 저렴한 토지 분양가
- 최근 3년간 외자 유치 가장 많은 지역
- 교육·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최적의 정주여건
- 국제교육특구 지정 3개소 (아산, 천안, 홍성·예산)
- 백제문화·내포문화·유교문화의 조화

서울

동탄 신도시

천안아산신도시

세종시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의 중심

기업하기 좋은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확보!

- 경부·호남·서해안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당진대전 고속도로, 대전진주 고속도로와 연결
- 경부고속철도, 경부선·장항선철도 등과 연결, 사통팔달 광역교통의 중심에 위치

경제발전의 중심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완벽한 경제 인프라!

- 천안~아산~서산~당진, 수도권과 연결된 신 산업벨트 조성
- 태안기업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경제성장 거점지역과 인접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시행사

충청남도	도청이전본부 개발과 042) 220-3833
충남개발공사	경영 기획본부 보상분양팀 041) 630-7825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택지보상판매팀 042) 820-2714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팀 042) 470-0194

* 상기 개발여건 계획도의 내용 및 이미지는 실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광고에 사용된 문안은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사업개요

·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 면적 9,950,521㎡ · 사업기간 2007~2020년 (도청사 이전 2012년)
· 사업비 약 1조 9859억원 · 목표인구 10만명(38,500세대) · 인구밀도 100명/ha · 사업시행사 충남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newcity.chungnam.net

“대한민국 正統性 인정 않는 세력이 문제”

남시욱(광화문문화포럼 회장) 회우가 최근 724쪽에 이르는 ‘한국진보세력연구’라는 방대한 저서를 출간했다. 해방 이후 한국 진보세력의 발자취와 사상, 인맥, 활동상을 분석한 이 책은 주석만도 1,731개에 분석 대상이 2,369명에 이르는 대 연구서이다. 저자는 2005년에 ‘한국보수세력연구’를 펴내면서 자연스럽게 진보세력에 대한 자료를 축적했기에 지난 3년간 이를 정리 보완해 이번에 ‘한국진보세력연구’를 출간했다고 말했다. 책은 출간 한달만에 초판이 매진돼 이미 재판 발행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남 회우를 2009년 7월 21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클럽에서 만나 ‘한국진보세력연구’의 집필이유와 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 시점에서 왜 진보세력 연구인가에 대해 남시욱 회우는 “한국 진보세력의 총체적 파악을 위해 입체적 접근이 필요했다”면서 한국에서의 진보세력은 좌파세력보다 훨씬 범위가 넓어서 좌파가 아닌 진보세력이 있다고 말하고, 흔히 좌익과 우익으로 분류되는 개념과 진보와 보수로 지칭되는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먼저 이 책의 저술 배경을 밝혔다.

좌파와 우파는 이념적 개념이고 보수와 진보는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개념으로 한국의 구식 좌파는 낡은 교조적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에서 오히려 진보라고 이름 짓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남 회우는 “현재 한국진보세력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고 말하고, 이런 경향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으로 일제 때부터 이어져 온 사회민주주의적 온건 진보세력이 소멸하고 혁명을 내세운 좌파 운동권이 득세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현상은 “해방정국에서 박헌영 등 일부 마르크스주의적 진보세력 특히 공산당 계열이 코민테른 노선을 지켜 소련의 지시에 복종함으로써 독자성을 상실한 것”과 비슷한 현상으로 보았다.

자연스럽게 한국진보세력의 줄기를 들추면서 남 회우는 이들 민족민주민중

「한국 진보세력 연구」 펴낸 南時旭회우



主體사상 따르며 무조건적 통일 추구 보수-진보 보완적 관계 돼야 발전 가능

노선에 입각한 NL파의 좌파 통일운동 세력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무조건적 통일을 추구하는데서 이른바 ‘종북파’가 된 것이 문제라면서 진보연대, 범민련, 한총련, 범청련 등은 물론 제도권 정당인 민노당의 NL파 등이 이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 안에까지 일부 좌파 세력이 자리하고 있었던 점도 지적했다.

“비주류 진보”를 자처한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 “교조적 진보세력”이라고 지칭한 현재의 진보세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북한을 맹목적으로 감싸고



김일성 주체사상에 빠진 ‘종북세력’이라고 분석하고 자유 시장 왜곡, 반기업정책, 성장을 저해하는 분배정책, 기존 노조의 기득권 감싸기, 이미 소멸된 낡은 진보사관 등에 갇힌 “수구세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시욱 회우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 진보세력은 일제시대부터 극좌 공산주의에서 무정

부주의, 온건 사회민주주의, ‘페이비안 소사이어티’ 등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지녔던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6·25 전쟁을 겪으면서 진보세력은 완전히 좌익세력으로 인식되었고 특히 군사 정부 시절에는 진보세력

이 위축되어 지하서클화 하는 등 온건 사회민주주의 세력까지도 발 붙일 수 없는 풍토가 조성돼 상대적으로 보완적이어야 할 보수와 진보가 적대적 관계로 발전됐다고 분석했다.

남 회우는 “우리 사회에서 선으로 인식되는 진보란 용어에 대한 선점경쟁이 일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보수와 진보는 서로 보완되는 상대적 개념이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면서 책에서도 분석했듯이 우리 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박사도 젊어서 진보주의 운동에 몰입했던 사람으로, 우리 헌법에는 진보세력이 추구하는 토지분배 등 혼합경제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남 회우는 기본적으로 진보세력이 추구하는 분배, 환경생태, 여성, 소수자 보호, 인권 등의 가치는 보수세력도 함께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다고 지적해 보수와 진보는 서로 보완적이어야 한다면서 진보가 보수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듯 보수도 마찬가지로 진보의 가치를 인정하고 감싸 안는 따뜻한 보수로 서로 수렴될 때 한국정치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남 회우는 이 연구에서 한국진보세력은 더 이상 사회주의의 도래를 꿈꾸는 낡은 진보사관이나 맹목적 통일지상주의, 성장을 저해하는 분배지상주의 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부응할 수 있는 진보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남 회우가 제시한 한국진보세력의 대안은 과거처럼 시장경제체제의 근본적 전복이나 변혁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틀 안에서 인간해방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다면서 특히 조화로운 성장과 분배, 세계화와 개방에 대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보다 좋은 사회건설이라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없고 나아가 한국정치의 주류에 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뷰=오건환
본회 상임이사



이 한장의 사진 마이클 잭슨과의 추억

1988년 봄, 당시 KBS LA 지국장이던 나는 어렵사리 마이클 잭슨과 연결되어 그에 관한 특집(50분 예상)을 만들고 있었다. LA 맨 나이에 있는 그의 본가(부모가 살고 있음)를 사흘간 취재 촬영한 끝에 말미를 장식할 마이클 잭슨과의 단독 인터뷰를 할리우드의 한 스튜디오에서 했다. 보기보다 자상하고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의 명복을 빈다.

〈조창화 대한언론인회 회장〉

우리 역사에서 나라를 멸망의 위기로 빠뜨린 임금도 많았는데, 조선조의 선조와 인조도 그러했다. 예나 이제나 국가 최고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하고 리더십이 없으면 국정은 표류하게 마련이다. 조선왕조는 27명의 국왕 가운데 선조의 재위 기간만큼 다사다난했던 적도 없었다. 그의 재위 중에 동서당쟁이 시작되었고,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선조가 재위 41년 내내 부국강병?국리민복은 도외시한 채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그의 비정상적 즉위과정에서 비롯됐다. 선조는 명종이 후사 없이 죽는 바람에 조선왕조 사상 최초로 방계승통에 의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그는 중종의 서손 가운데 한 명이었다. 후궁 소생 아홉째 아들 덕흥군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니 정상적 상황이었다면 국왕후보에도 끼지 못할 서열이었다. 그런 까닭에 선조는 재위 내내 정통성에 대한 콤플렉스에 시달렸으며, 이는 결국 신하들과의 불화, 또 자신의 아들 광해군과의 불화로도 나타났다. 사후에는 독살설로 시달리게 됐던 것이다.

정통성에 대한 콤플렉스가 컸던 만큼 선조의 왕권 안보에 대한 집착은 병적이었다. 그는 임진왜란이 터지자 백성과 서울을 버리고 피난가면서도 어제는

동인, 오늘은 서인의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 당쟁을 자신의 왕권 안보에 악용했다. 또한 장수들을 의심하고 시기하여 김덕령(金德齡)을 죽이고, 이순신(李舜臣)과 곽재우(郭再祐)를 죽이려고 했으니 이는 이적행위와 같았다.

성격이 모질고 시기심이 강했던 선조는 결코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축옥사(鄭牧立事件)에 대해서도 뒷날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내가 흉악한 성흔(成渾)과 악독한 정철(鄭澈)에게 속아서 어진 신하들을 죽인 것이다.” 1,000명에 이르는 인재를 참살한 기축옥사는 자신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서인의 손을 빌려 동인을 숙청한 사건이었

宣祖와 仁祖를 다시보라

溫故知新



황원갑

- 본회 회우
- 소설가
- 역사 연구가

고, 그 이면에는 자신의 왕권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음흉한 저의가 숨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직전 일본의 사정을 살피고 돌아온 뒤 전쟁이 있을 것 같다는 동인 황윤길(黃允吉)의 보고를 무시하고, 서인인 김성일(金誠一)의 보고를 수용함으로써 무비유환(無備有患)의 재앙을 당했던 것이다. 전쟁의 위험이 조금만 있어도 대비

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기본 상식이거늘 당시 선조와 여당인 동인들은 왜적이 쳐들어오면 자신들은 무사할 줄 알았을 까.

그래서 서울을 몰래 버리고 달아나다가 백성들로부터 돌팔매질까지 당했으니 그런 국왕은 국왕도 아니고, 그런 정부는 정부도 아니었다. 선조는 재위 중

10여 차례에 걸쳐 “임금 노릇 못해먹겠다”며 마음에도 없는 양위국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는 물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쇼였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임진왜란으로 망국의 위기를 당했으면서도 유비무환의 교훈을 무시하여 병자호란을 당했다. 친명과 서인의 추대로 광해군을 쫓아내고 즉위한 인조는 국제정세에 어두워 반청정책을 펴다가 병자호란을 자초했다. 인조 15년(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소현세자(昭顯世子)와 함께 남한산성을 나서 삼전도의 항복식장으로 내려가 오랑캐라고 멸시하던 청 태종에게 하루에 열두 차례나 큰절을 올렸으니 치욕도 그런 치욕이 없었다.

선조와 인조 같이 겉으로는 영리하나 알고 보면 음흉하게 이적행위를 자행하는 이런 엽기적 인물들이 국가지도자가 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도 거짓말과 경박한 언동을 밥 먹듯이 하고, 재임기간 내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북한에 퍼주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이들이 10년간이나 국정 최고책임자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던가. 그 중 남은 한 사람은 아직도 공리공명(空利空名)의 허황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행동하는 욕심’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으니 노추(老醜)가 따로 없다고 하겠다.

전교조가 사라져야 교육이 살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된다. 이런 논리에 동의하는 사람들 많아 요즘은 전교조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그 중에 군고위급 간부 인사들의 걱정이 대단하다. 이유인즉 군에 갓 입대한 신병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우리나라의 주적이 미국이다.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북한을 돕겠다”라고 응답하는 숫자가 아직도 많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회를 계급사관적 시각에서 보아 재벌들을 증오하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등 사회주의의 평등사상에 몰입되어 있는 젊은 이들이 많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결과는 엄연한 사실이고 실제로 우리 젊은 세대 대부분이 반미친북 좌경의식화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전교조의 반미친북 좌경의식화 교육에 기인한 것이다. 전교조는 북한의 역사적인 현대조선 역사를 배긴 책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왔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해 왔다.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말고, 군대도 가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 “참교육” 때문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며 북한과 남한 민족이 함께 하는 민중국가를 형성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김정일의 독재쯤은 눈감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전교조는 1989년 5월 28일 결성 선언문에서 “현재의 사회모순과 교육모순을 낳고 있는 반민족적·양심적 지식인을 모든 민족·민주세력과 크게 연대하여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 그리고 통일

전교조 사라져야 교육이 산다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전교조가 80년대에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계급투쟁의 변혁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사회모순이 반민족적 독재정권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정부를 외세(미국)의 앞잡이인 식민지정권으로 규정하고 독재정권에 맞서 싸워 통일의 그 날까지 투쟁을 벌여나가자는 뜻이다.

전교조는 창립 선언문에서 참교육을 통하여 사회모순을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참교육이란 민족교육·민주교육·인간화교육으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민족교육이란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교육이고, 민주교육이란 민중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민중민주주의 교육이며 인간화교육이란 기독교권층은 통일을 원치 않기 때문에 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통일교육이다. 정리하면 참교육이란 민중교육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중혁명 역량을 키워주는 민중민주주의 교육이요, 더 나아가 연방제 통일교육이요 적화통일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는 북한의 4대 혁명노선인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평화체제구축, 연방제통일을 강력 지지하



이상진

-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상임대표

고 있다.

이러한 무서운 통계가 감춰진 교육이 참교육인데 이 독수리 발톱을 숨기기 위하여 당시 촛지거부운동을 벌였으며 창립초기에 학부모, 국민들은 그들의 전략·전술에 모두 속아 지금까지도 전교조를 훌륭한 참교육 운동가로 오해하고 있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다. 그러므로 그들은

노동자(민중)를 자처하게 되고 그들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폭력과 기만, 투쟁, 쟁취 등의 언어를 동원시켜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국가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집단이다.

참교육의 내용 중에는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노선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지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백지와 같은 순수한 우리 아이들의 머리속에 반미친북 좌경의식화 세뇌교육으로 마음껏 좌익지도를 그려넣어 평생을 돌이킬 수 없는 좌익투사로 변신시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사악한 집단이 전교조이다. 그러므로 전교조는 국가보안법상 ‘단체성’과 ‘이적성’을 고루 갖춘 이적단체이다. 시민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에서는 이러한 전교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아이들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10월 15일 전교조

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전교조는 “6월 항쟁의 소중한 역사적 가치” 및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있으며 교육민주화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역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6월 교사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서울광장을 100일동안 좌익들 난동으로 무법천지를 만드는데 동참했던 전교조가 인권이니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난동·폭동·폭력이 난무해도 좌익혁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민주주의요,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사회혼란을 야기시켜 좌익혁명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집단이고, 공교육을 파탄시키며 반미친북을 가르치는 종북집단일 뿐이다.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하여 징계 처리중에 있다. 시국선언 행위는 적극적 참여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수학을 침해하여 국민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교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 직무를 해태하여 공무원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본 것이다. 또한 시국선언의 내용은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정치상황과 관련되므로 정치활동에 해당되어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다. 전교조의 해법은 법대로 처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들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일탈행위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하여 엄히 다스려 나가야 할 것이며, 전교조 없는 밝은 교단을 위하여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국민 모두는 알아야 한다.

아프리카 後進性은 지도자 권력남용·부패 탓

書舍餘話 ⑨

아프리카, 무지개와 뱀파이어의 땅

(로버트 게스트 지음, 김은수 옮김)



호 천 응

- 본회 편집위원
- 수필가



대형 서점에서 만난 ‘아프리카, 무지개와 뱀파이어의 땅’은 족쇄 채워진 대륙, 아프리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번역될 ‘The Shackled Continent - Africa’s Past, Present, and Future’라는 원제보다 더 멋진 제목으로 다가왔다.

아프리카는 무지개와 같은 희망을 간직한 땅이지만 뱀파이어(흡혈귀)들의 착취를 받고 있는 무섭고 끔찍한 대륙이라는 뜻을 잘 담고 있기 때문이다.

책의 첫머리에서 “우리는 아프리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옮긴이의 글을 읽으면서부터 이 책의 매력에 빠져 들었다.

남아공에서 한국대사로 근무한 경력의 역자는 “남아공에 있으면서 늘 나의 머릿속을 맴돌았던 것은 과연 아프리카가 빈곤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게으른 것은 선천적인 것일까, 후천적인 것일까? 그토록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도 왜 발전을 못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던 중 남아공의 한 서점에서 로버트 게스트가 쓴 이 책을 발견했다.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듯 나는 이 책에 빠져 들었다. 그의 생생한 묘사는 나로 하여금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고 썼다.

저자는 5년 동안 아프리카를 취재한 영국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의 로버트 게스트 특파원이었다.

저자는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많은 것을 보았고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삶을 느꼈으며 스스로 많은 체험을 하고 어려움도 겪는다. 그는 이런 일들을 소설처럼 여행기처럼 서술하고 때로는 평론으로 아프리카를 분석한다.

저자는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을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식민지 해방투쟁의 지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십년째 권력을 남용하면서 부패와 탐욕으로 국민들을 상상 못할 가난과 질병으로 몰아넣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행위를 생생하게 폭로하고 있다.

아프리카에는 이와 비슷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으며 이런 지도자와 그 패거리 그리고 그들의 앞잡이로 총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나 편하자고 남을 괴롭히고 뺏는 사람들이 모두 흡혈귀인 뱀파이어들이며 이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빈곤과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왔다고 외친다.

그는 광차 안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점심거리를 찾아 헤매는 앙골라 아이들의 이야기, 굶는다는 것이 정말로 어떤 것인지 전해주는 에티오피아 유랑자 이야기도 쓰고 있다. 반대파 종족의 손을 잘라 그 손으로 빵을 때린다는 끔찍한 반군의 만행도 기록한다.

이 책은 이어 콩고의 다이아몬드와 탄탈 같은 자원이 오히려 재앙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자원이 오히려 내전을 일으키며 분쟁의 해결을 막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풀이한다. 자원이 없는 나라의 내전이 오히려 쉽게 해결된 사례로 모잠비크를 들고 있다. 욕심 낼 것이 있으면 분쟁이 생기고, 먹을 것이 많으면 싸움이 오래간다는 얘기다.

죽음에 이르는 섹스로 인한 심각한 에이즈의 문제에도 편견과 무지로 일관하는 고집스런 정치지도자, 6주 동안에 약 80만명이 무참히 살해된 루안다 대학살의 경우나 250개 종족이 살고 있는 나이지리아와 같이 정치지도자들이 정권 장악이나 유지를 위해 갈등을 부추기고 사람을 죽이는 종족 갈등의 문제를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설명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방안도 제시한다.

또 아프리카에서 선진국들의 원조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세계적인 구리 광산을 가진 잠비아가 대규모 원조를 받고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면 다이아몬드 광산을 가진 보츠와나가 모범국가가 된 배경을 시원스레 설명한다.

이와 함께 원조와 병행해서 아프리카와의 무역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한다.

한국 특파원으로도 일한 적이 있는 저자는 한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식민통치의 아픔을 가진 국가들이 과거를 어떻게 극복했고 경제적·민주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에 관한 조언도 하고 있다.

빠이픈 역사를 가진 한국은 1953년 가나와 같은 수준으로 가난했으나 지금은 그 보다 20배나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아프리카의 고통을 보면서 아프리카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아프리카가 우리와 아주 멀고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타산지석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의 피를 빨아 먹는 뱀파이어가 많은 나라에서 날뛰고 있으며 우리 나라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물론 피를 빨아먹는 정도와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말이다.

경제 발전이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명분만으로 군림하고 치부하고 국민을 힘들게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한국판 뱀파이어들일 것이다. 정상적인 기업행위나 노동을 통하지 않고 부의 축적을 추구하는 행위를 뱀파이어 경제라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국판 뱀파이어들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다. 내가 한 일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반성을 촉구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충언을 던진다.

많은 시간을 허송하며 나라 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도 뱀파이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일까?

나라 일을 챙기지 못한 것이 국민 전체보다 내 명분, 내가 속한 정당, 내 패거리의 권익을 앞세운 탓이라면 뱀파이어 패거리와 속성은 같은 것이 아닐까? 땡자가 얘기한 50보 100보의 이야기가 될 터이다.

아프리카 종족 분쟁을 읽으면서 우리의 지역 갈등을 생각해야 했고 아프리카에 대한 외국원조의 실패 얘기를 읽으면서 핵무기 생산에 도움이 되었다는 대북한 퍼주기 얘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

저자는 아프리카 문제를 쉽게 접근하고 진단한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착한 사람들이 순박하게 살고 있는 아프리카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을 괴롭히고 피를 빨아 먹는 뱀파이어와 그 패거리들을 제거되고 바른 지도자들이 나와야 한다고 외친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절약하고 부지런한 생활을 하도록 깨우쳐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만들고 팔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중세 시대의 영국의 수도사였던 윌리엄 오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 저것 불필요한 것을 깎아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는 면도날 이론을 제시했다. 문제는 단순화 할수록 쉽고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정치 지도자의 문제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後記：이 책을 읽으면서 각 장의 첫 부분에 ‘리딩 포인트’를 두어 맥락을 잡아준 것이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책을 쓴 후에 발생한 큰 사건이나 달라진 정세와 변화 등에 대해 역자가 각장 뒷부분에서 해박하고 명쾌하게 보완하고 설명해 준 ‘더 알아두기 코너’는 귀한 읽을 거리였다.

이 책을 번역한 김은수씨는 직업 외교관이었다. 2009년 유네스코 한국 대사로 내정된 직후 이 책의 번역을 마치고 출간을 이틀 남겨두고 지난 6월 20일 중국에서 돌연 사망했다.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 서평을 쓰겠다고 생각하면서 김은수 대사를 만나 아프리카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고 기대하고 계획했었는데, 김 대사의 갑작스러운 사망소식은 나에게도 충격이었다.

“삼가 김 대사의 명복을 빕니다.”



대한민국 희망 협주곡

대한민국에는 보이지 않는 땀방울과

지칠 줄 모르는 응원과

변치 않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을 환하게 비쳐줄 희망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SBS에서는 대한민국의 따뜻한 희망을 모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협주곡을

선사해 드립니다.



찬란한 帝國-賢者의 나라 터키를 가다

해외문화유적 탐방은 쉽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다. 인류가 남긴 찬란한 문화유산과 역겹의 세월이 빛은 위대한 자연유산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여행 끝에 하나의 깨달음을 얻는다면 영혼이 풍요롭고, '한 장의 추억'을 남기는 것도 스스로를 위한 값진 투자다.

최근 둘러 본 터키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의 사람과 문물이 만나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온 흥미진진한 나라다. 유럽 문명의 밑거름이 된 헬레니즘문화의 중심지이자, 중세 천년을 빛낸 비잔틴 문명의 무대다.

찬란한 제국의 영화가 흐르는 도시, 이스탄불은 유럽연합이 '2010 유럽문화수도'로 선정할 만큼 역사의 흔적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곳이다. 동로마와 비잔틴, 그리고 오스만 등 3대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은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인류문명의 옥외 박물관'이다.

6개의 미나레(모스크의 첨탑)와 크고 작은 돔이 조화를 이룬 '술탄 아흐메트 자미'의 건축미는 우아하고 매혹적이다. 푸른색 기조로 장식되어 '블루 모스크'로 불리는 내부에 들어서니 수백 개의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이 몽환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마주 보고 있는 '성 소피아사원'은 비잔틴 건축의 걸작이다. 소피아사원은 콘스탄티노폴을 중심으로 1000년(537~1453)이나 이어졌던 비잔틴제국의 기독교 신앙 중심이었다. 오스만제국이 이스탄불을 정복한 뒤 4개의 미나레를 세우고 聖畫에 회칠을 한 뒤 코란을 써넣어 이슬람사원으로 사용했다.

다시 회칠을 벗기는 작업이 이어지면서 성화와 코란이 공존하여 색다른 감흥을 준다. 지진의 영향으로 2층 회랑의 기둥이 기울고, 대리석 바닥에 금이 가 언젠가는 관람이 통제되거나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슬람권에서 흔하게 쓰는 '인살라'는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라는 의미다. 깊은 신앙심과 아동바동하지 않는 유유자적한 관습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은 엿볼 수 없어 경제성장을 느리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터키 사람들의 삶과 일상이 녹아 있는 곳은 재래시장이다. 과거 실크로드의 종착지로 동서물물교환의 장소였던

'그랜드 바자르'에 빼곡하게 들어선 토속상점은 그 자체가 볼거리다. 카펫, 터키식, 가죽제품, 도자기와銅그릇, 각종 식료품, 터키식 젤리와 향신료 가게가 즐비하여 보는 것 만으로도 눈이 즐겁다.

터키인들의 상술은 가격을 흥정할 때 먼저 깎아주지



이 규 섭

· 본회 편집위원
·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자존심을 살려 주고 실리를 얻는 요령이다. 터키인 현지 가이드는 아침마다 "구나이트(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도 한국인이나 묻고 "안녕!" 서툰 발음으로 반가움을 표한다. 이스탄불 공항직원은 모스크바 경유 인천공항 도착 짐을 부치며 '서울'

과 에게해를 거쳐 이스탄불로 되돌아오는 1주일 정도의 일정이다. 아시아 땅인 수도 앙카라에서 6·25 한국전 참전 용사비에 묵념을 올리고 '요정의 굴뚝'이라 불리는 기암괴석과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던 지하도시 '데린구유'가 있는 카파도키아를 거쳐 '하얀 석회봉'으로 유명한 과묵칼레로 향한다.

에게해 연안의 고대도시 에페소 유적에 감탄사를 연발한 뒤 휴양도시 아이발릭에서 푸른 에게해와 만난다. 태양이 유혹하는 에게해의 낙조는 황홀하도록 아름답다. 낙조에 마음을 붉게 물들인 채 파도소리를 베고 눕는다. 트로이 유적을 둘러 본 뒤 트로이목마 3층 뱃속에 올라가 손을 흔들며 '증명사진'을 찍은 뒤 다르다넬스 해협을 거쳐 유럽 땅으로 되돌아 온다.

타원형의 터키는 동서 1,600km, 남북 550km에 총면적은 78만km²로 한반도의 약 3.5배로 넓다. 동남부지역은 아시아풍 건축물이 독특한 카르스, 기독교 신앙이 이어지고 있는 마르딘 등 유적과 볼만한 곳이 많지만 이라크와 시리아 등과 국경이 가깝고 교통의 불편과 막연한 불안감으로 현지인들도 꺼린다. 최근 들어 한국여행자들이 여행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요정의 굴뚝'이라 불리는 기암괴석이 즐비한 카파도키아.

곳곳에 歷史흔적... 인류문명의 '옥외박물관'



터키의 '바보 현자' 호자 조형물.

않고, 원하는 가격이 얼마냐고 되묻는다. 그래서 서로 원하는 가격을 맞춰 나간다. 무조건 깎아 달라는 관광객들 때문에 아예 값을 올려 부르는 것이 관례인 만큼 느긋하게 흥정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무조건 깎기보다 물건은 갖고 싶은 데 돈이 모자란다면 설득하는 게



호자의 커리커처.

을 강조하니 "두바이?"하며 농을 던지는 여유를 부린다. 소박한 품성에 느긋한 터키 사람들의 친절하고 미소와 선한 눈빛에 여유가 묻어난다.

터키 관광코스는 대부분 이스탄불을 둘러 본 뒤 중부 아나톨리아 내륙지방

터키의 관광명소는 이동거리가 길어 버스로 짧게는 3~5시간, 길게는 10시간 넘게 걸려 체력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허리가 뒤틀리고 생리현상이 일어 날 때쯤 휴게소의 휴식은 달콤하다. 한 잔에 2달러 받는 오렌지 생즙, 쫄쫄쫄쫄한 아이스크림도 감칠맛을 내며 가슴을 시원하게 한다. 젤리와 양귀비 씨를 넣어 즉석에서 만들어 주는 요거트는 5달러로 비싼 편이지만 피로회복에 좋다고 소문나면서 한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먹거리가 됐다. 지루함을 달래 주는 것은 차창을 스쳐 가는 자연풍광이다. 터키의 내륙 중앙 아나톨리아 지역은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여름에는 비가 거의 없어 강한 햇살에 금세 피부가 발갛게 익는다. 타는 목마름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황토 빛 드넓은 평원엔 밀밭이 황금빛으로 일렁인다. 고원 초지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양과 염소 떼의 목가적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척박한 땅에 뿌리 내린 포도는 그 자리에서 말라 건포도로 변한다.

20면으로 이어집니다.

잊지 못할 그때 그일들

獨島취재... 서울신문·신아일보 시절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는데 국방부 기자들은 주역인 朴正熙 소장이란 인물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大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경북 문경 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그만 두고 민주군관학교를 거쳐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다. 만주군관학교를 3등으로 졸업한 朴正熙는 자동으로 일본육사에 입학할 수 있는 특전을 누렸었다.

5·16 아침 기자들이 朴正熙 소장의 정체를 취재하느라 허둥췌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부산에서 혼자 빙긋이 웃었다.

문경초등학교 교사를 미련없이 집어 던진 이유는 경북도 학무과 일본인 장학사가 출장나와 교장에게 불손한 태도를 취하는데 격분하여 사표를 냈다는 일화는 李洛善 소령을 통해 알게 됐고 4·19직후 朴正熙 소장 인물론으로 민주신보에 이미 보도한바 있었다.

서울 환도때 雨聽 李建赫 趙寅相을 따라 일찍 중앙지로 진출하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면 민주신보에 눌러앉은 것이 오히려 득이 된 점도 있었다.

朴正熙 소장을 알게 됐고, 李晦榮 대령과 교분을 나눈 것은 내 인생에 큰 보탬이 되었다. 부산에 눌러 앉은 덕에 獨島를 취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독도

는 한·일간에 말뚝싸움이라 했다.

우리가 가서 대한민국 영토라는 표지판을 세워 놓으면 일본측이 슬그머니 가서 뽑아버리고 자기네 영토라는 표지를 세우는 신경전이었다.

독도에 상륙하기 전 일본 해안순시선 나가라(ながら)호가 평화선을 침범, 운항중인 것을 발견, 해군 함정이 정선 명령을 내리고 포문을 겨누었다.

그 때만 해도 일본은 재무장하기 전이라 일본 순시선은 선미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고는 순순히 정선했다. 선미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스크류’를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였다.

평화선을 침범했으니 즉각 물러가라는 명령에 일본 순시선은 사라졌다. 그 날 저녁 일본 NHK 라디오 방송은 뉴스시간에 ‘나가라’ 호에는 중의원의원 쓰치마사노부가 ‘타케시마’(竹島)를 현지 시찰하기 위해 승선하고 있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차대전 당시 남방에 파견된 일본군 작전참모로 악명 높았던 그가 어느새 중의원 의원이 됐으니 일본 우파의 생명력은 질기기도 하구나 싶었다.

독도에 상륙하여 우리가 준비해간 대한민국 獨島라고 새긴 대리석을 동쪽섬 바위를 파고 시멘트로 단단히 고정시켰다.

독도에 상륙하자, 먼저 눈에 띈 것은 위령탑이었다.

경북지사 曹在千의 이름으로 된 위령탑 내용은 울릉도 어민들이 독도로 출어하여 평화롭게 어로작업 중에 오키나와 기지를 출발한 미공군 폭격기의 폭격을 받아 수많은 희생자가 났다는 내용이었다.

너무나 가슴아파 머리를 떨구었다. 서쪽 섬엔 미 공군의 폭격 연습으로 거대한 바위가 무너져 내린 흔적을 동쪽 섬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朴대통령이 기자오찬장서 안부문자 사장이 불러 “청와대 나가라” 강제명령

민주신보는 부산역전 대화재 사건으로 잣더미가 되어버렸다. 부산일보도 전소했다. 얼마되지 않는 박봉도 구경하기가 힘들었다.

나는 한국일보 사회부장 李沐雨와 차장 張廷佑의 추천으로 서울신문(당시 사장 石泉 吳宗植)에 들어갔다. 얼마 후 한국일보 편집국장 金顯濟, 편집담당 부국장 조기호, 사회부장 李沐雨, 차장 張廷佑 등이 대거 서울신문으로 물려왔다.

당시 신문계는 이들을 金顯濟 사단이라고 불렀다. 사회면은 단연 활기가 돌았다. 사회부 기자 생활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였다. 특종도 많이 했고, 내리다지 기사도 꽤 썼다.

6살 趙治勳이 그의 형 趙祥衍을 따라 기타니(木谷) 기원에 입문하러 일



정준모

- 본회 회우
- 전 신아일보 도쿄특파원
- 6·25 중군기자

본으로 가게 되었다는 보도는 부드러운 기사를 잘 쓰기로 이름난 李沐雨 부장으로부터 재미나게 잘 썼다는 말도 들었다.

6살 趙治勳은 엄마 품을 떠나기가 어려워 가겠다 했다가 하루도 가지 전에 안가겠다고 해서 그의 형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趙祥衍이 바둑수업으로 일본에 건너간 것은 그의 나이 10대 후반이었기에

시기를 놓쳐서 동생 治勳만은 어릴 때 가야 한다고 부모를 설득했다. ‘도쿄’에 가면 차가 땅 밑으로도 다니고 공중으로도 다닌다는 말로 어린 동생의 마음을 움직였다. 꼬마 趙治勳은 기타니 사범의 어린 딸에게 선물할 한국 인형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일보 사장 張基榮은 각 신문 석간이 나오면 맨 먼저 서울신문 사회면을 펼쳐보며 책상을 내리쳤다는 일화가 퍼졌다.

張 사장은 金顯濟 편집국장을 가리켜 “그가 가는 신문마다에는 그의 족적을 뚜렷이 남긴다”는 말을 남겼다.

金顯濟 사단은 2년을 넘기지 않고 다시 京鄕신문으로 떠났다. 나는 놀러 앉았다.

입사해서 4년 6개월에 사장과 편집국장이 다섯이나 바뀌어 편집국에서는 내가 고참이 됐다. 이토록 바람이 센 곳이었다.

張廷佑와 나는 구제 4년제 중학 동기였으나 그와는 신문제작 외에는 가급적 사담은 삼갔고 차 한잔도 나눈 적이 없었다.

나는 新亞일보로 옮겨 갔다. 여전히 국방부 출입을 맡았다.

그러던 어느날 기사마감을 하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청와대 출입하는 정

치부 李沖이 나에게 다가와 “오늘 朴 대통령의 생신에 출입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옛날에 정 아무게 라는 기자가 있었는데, 그후 소식을 모르겠다는 말을 꺼내어서 저희 신문에 있다고 하니 내가 안부 묻는다고 전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냥 덩덤히 받아 넘겼다. 李沖은 서울신문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결정나 있었다.

국가 원수의 안부 한 마디가 편집국을 술렁이게 했다.

다음날 오후 사장 비서실에서 사장 면담으로 올라 오라는 전갈이 왔다.

2층 사장실로 올라가면서 크게 잘못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사장이 나를 부르는가 궁금한 마음으로 사장실에 들어섰다.

“You 朴 대통령 잘 아는가.”

사장은 기자 누구에게나 You 라고 불렀다. 서로가 선택로였다.

“그 분은 국가 원수이고 저는 일개 기자입니다. 어찌 잘 알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불쑥 나오는 대답이었다.

사장은 고개를 기웃거리며 납득이 안간다는 표정이었다.

그 날 사장 면담은 이것으로 끝났다. 사장은 安東농림학교 동기동창인 李洛

善 상공부 장관을 찾아가서 내 이야기를 꺼냈다. “청와대 출입으로 내보내면 각하가 아주 좋아하실 거야.” 이 한 마디에 사장은 결심했고, 꽤 씩씩하게도 생각했

을 것이다.

다시 사장실로 불러 올라갔다.

“you 내일부터 청와대 나가라.”

“월남 가야 합니다. 출장명령서에 사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출장비도 댔고 이미 짐 싸버렸습니다.”

“얼마나 걸리나.”

“한 2주일 예정입니다.”

“1주일 안에 돌아오라. 기회는 많지 않네.”

사장의 이 한마디 속엔 꽤 씩씩하다는 뉘앙스도 포함되어 있었다.

1주일 이란 짧은 월남종군을 하는동안 돌아오자, 청와대 출입기자 생활이 시작됐다.

그런데 나는 사회부 기자이지 정치부 기자는 생리에 맞지 않는다고 속으로 몇 번이나 혼자 되뇌었다.

19면에서 이어집니다.

‘신이 빛은 바위유적 카파도키아’에서 하얀 석회암이 눈이 덮인 듯 기이한 ‘파묵칼레’ 가는 길목 악웨이트 휴게소 입구에 이색조형물이 눈길을 끈다. 이 슬람 복장에 흰 수염이 더부룩한 노인이 당나귀를 거꾸로 탄 채 한 손에 체리를 들고 있다. 13세기 터키의 賢者로 일컬어지는 나스레딘 호자(1208~1284)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악웨이트 지방은 체리 생산지로 유명하다.

어느 날 당나귀를 거꾸로 타고 가는

호자를 본 사람들이 “선생은 왜 당나귀를 거꾸로 타고 계십니까?” 물었다. 호자는 “나는 앞쪽으로 가야 하는 데 당나귀는 반대쪽으로 가려고 해 타협을 본 걸세”라고 대답했다. 하루는 당나귀를 타고 가던 호자가 땅에 떨어졌다. 이를 본 동네 아이들이 깔깔대고 웃으며 놀렸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을 틈 틈고 일어난 호자는 “웃지 마, 이 녀석들아. 떨어지지 않았어도 여차피 지금 내리려고 했어.”

‘바보 현자’ 호자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출간될 만큼 유명한 일화가

웃음의 철학을 선사한다. 비열하거나 속 좁은 사람이 있으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골려주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웃음과 인생의 교훈을 주었다. 호자는 당시 몽골의 침략과 비잔틴 제국의 위협 속에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혼란한 시기에 특유의 재치와 유머로 음울한 사회분위기를 반전시켜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 줬다.

살아가기가 팍팍할수록 재치 있는 유머와 위트는 삶의 윤활유 구실을 한다. 어리숙한 사람들은 홀대받고 약삭빠른 사람들이 활개치는 세상일수록 번뜩이

는 지혜로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호자 같은 사람이 절실하다.

서양 사람들의 유머와 위트는 재치가 번뜩이지만 한국인들의 풍자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빗대어 공격하고 폭로하는 경향이 짙다.

인터넷의 패러디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희망보다 원망, 격려보다 질책, 칭찬보다 비방, 理性보다 煽動이 판을 치며 사회 곳곳에 침예하게 도사린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줄 우리 시대의 賢者는 없는가?

미디어 산업 미래 세미나



★ 고학용(한국언론재단 이사장) 회우 = 지난 7월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융합시대 미디어산업의 미래전략'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

'경제풍월' 지에 기고



★ 구종서(한국 문명사연구소 대표) 회우 = '경제풍월' 지 6월호에 '6·25 남침 59주년-친북좌파 역사왜곡 말라'를 기고.

편집인 기금 감사 연임



★ 권영국(강원일보 상임고문) 회우 = 7월 10일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기금회의에서 감사에 연임됐다.

'헌정'誌 6,7월호에 기고



★ 김진배(정치평론가 11,15대 국회의원) 회우 = 헌정회에서 발행하는 '헌정' 6,7월호에 '재미있는 정치·국회 이야기-李 박사가 직접 쓴 취임사 제 1성은 민주주의' 제하의 글을 기고.

천리포 수목원 다녀와



★ 김현(문화산책청류회 회장) 회우 = 7월 행사로 '숲의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바 있는 천리포수목원을 다녀왔다. 식도락 행사로는 24일 여름철 음식의 별미인 평양 냉면을 비교 음미하는 행사를 가짐.

'경제풍월' 6,7월호에 기고



★ 남시욱(광화문문화포럼 대표) 회우 = '경제풍월' 지 6,7월호 '편집위원장의 세상보기'란에 'MB정부 법수호의 지 있나'와 '노 역풍 제 2 촛불사태'를 기고.

'헌정'誌 6월호에 기고



★ 도준호(명지대 초빙교수, 북한 핵) 회우 = 헌정회에서 발행하는 '헌정'지 6월호에 '북핵 발사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응책' 제하의 칼럼'을 기고.



회 우 동 정

(가나다순)

고 이동수 동우회장 묘비제막



★ 박경석(동우회장) 회우 = ①. 지난 5월 24일 고 이동수 초대 동우회장의 묘비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묘란공원 묘원에서 제막. ②. 동아일보 전직 사우들의 모임인 동우회 회보 13호를 지난 6월 30일자로 발행.

'관훈저널' 여름호에 기고



★ 박기병(전 강원민방 사장) 회우 = '관훈저널' 2009 여름호에 미니 회고 '언론의 길 49년'을 기고.

전남일보 고문으로 위촉



★ 박기정(전남일보 사장) 회우 = 지난 6월 29일자로 전남일보 사장직을 물러나 고문으로 위촉됨.

재향군인회 인사 전형위원



★ 박진서 회우 = 재향군인회 정책자문위원인 박 회우는 최근 재향군인회 인사전형위원을 겸임하게 됐다.

'경제풍월' 6,7월호에 기고



★ 송효빈(전 한국기자협회장) 회우 = '경제풍월' 지 6,7월호에 '한나라당 재보선 전패, 집안 싸움 국민의 경고'와 '민주당의 감탄고토 추모 민심선동 말라'를 기고.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선언



★ 양희부(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회우 = 7월 6일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올해 인건비 삭감 등으로 절박되는 예산을 활용해 다문화 가정 지원, 농촌 고령자 지원 등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것을 선언했다.

'경제풍월'誌 등에 기고



★ 여영무(뉴스 앤 피플 대표) 회우 = ①. '경제풍월' 지 6,7월호에 'MB 인사의 교수병 국정실험실 시행착오'와 '부패가 역사될 수 있나'를 기고. ②. 동아일보 전직 사우들의 모임인 동우회 회보 13호에 '동우 논단-대북 선제공격도 고려해야 한다'를 기고.

터키 문화유적 탐방



★ 이규섭(본보 편집위원) 회우 =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찬란한 제국의 영화가 흐르는 도시, 이스탄불을 비롯하여 터키의 문화유적과 자연유산을 탐방했다.

'경제풍월' 6,7월호에 기고



★ 이두석(경제풍월 부회장) 회우 = '경제풍월' 6,7월호에 '자율과 규제 엇박자 교육정책- 3불을 허하라'와 '좌파 혁명 노리나'를 기고.

'조우회' 회보발행



★ 인보길(뉴 데일리 대표·조우회장) 회우 = 조선일보 전직 사우들의 모임인 '조우회' 회보를 6월 30일자로 발행.

동아시아 국제심포지엄 개최



★ 정구중(한일미래포럼 대표) 회우 = ①. 7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국제교류기금서울 일본 문화센터 이연홀에서 '21세기 동아시아의 환경문화와 교류·협력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②. 동아일보 전직 사우들 모임인 동우회 회보 13호에 '자랑스런 동우'로 인터뷰.

'헌정'誌 6,7월호에 기고

★ 정재호(헌정회 부회장, 9~10대 국회의원) 회우 = 헌정회에서 발행하는 '헌정'지 6월호에 '부영이 바위에 부서진 냇이여! 담배 한대 피우시구려' 제하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칼럼



을, 7월호에는 'MB를 향한 申聞鼓 5章'을 기고.

노년소비자 보호연합 대표로



★ 제재형(본회 명예회장) 회우 = 7월 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 창립총회에서 상임 대표로 선임됐다. 한국노년소비자보호연합은 최근 증가하는 노인 건강식품, 퇴직금 이자 증식, 노약자 보험 등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방지 교육 등의 사업으로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년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결성된 시민단체이다.

'관훈저널'에 기고



★ 진철수(U S A Briefing<뉴스 사이트>주필) 회우 = '관훈저널' 2009 여름호에 관훈클럽 초대 총무로서 '관훈클럽 기동 조세형 창립 회원이 남긴 뜻' 제하의 추모사를 기고.

시사誌 편집주간으로 취임



★ 천상기(경기대 초빙교수) 회우 = 선진한국민족연합이 창간한 월간 시사종합지 '빛나는 한국'의 편집주간으로 취임했다.

'헌정'誌 7월호에 기고



★ 최재욱(헌정회 대변인, 13~14대 국회의원) 회우 = 헌정회에서 발행하는 '憲政'지 7월호에 헌정회 역사탐방기행문 '화합의 모범 보인 5박 6일'을 기고.

YTN라디오 시청자 위원장



★ 한중광(한국재해구호협회 상임이사) 회우 = 지난 6월 24일 YTN 라디오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



★ 현소환(전 연합통신 및 YTN사장) 회우 = 29일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에 선임됐다. 현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다. 현 이사장은 IPI 종신회원이다.

수필

道人の 魂이 흐르는 東江

여름 東江은 누구나 한번쯤 가보기를 권하고 싶다. 사람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동강은 나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동강은 보통 강과는 달랐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과 道人정신을 가르쳐주고 냉정을 되찾게 해주고 있는 듯 했다.

강원도 영월, 정선, 평창군을 끼고 도는 국내 유일의 蛇行性 東江, 그 중에서도 특히 영월쪽 동강이 그러 했다.

동강 주변의 풍경은 곳곳이 한 폭의 동양화였다. 두 번째 비오는 날 갔을 때 차창 밖으로 보인 산중턱에 걸린 구름! 그 앞에 유유히 서있는 노송들! 그것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었다.

그러한 자연 그대로의 동양화를 보게 한 것도 역시 동강이 있기에 그 주변이 그런 조화를 갖게 되었다고 보겠다.

빛속으로 전개된 그 풍경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잘 그려진 그림이었다. 비 오는 날이 아니면 도저히 그런 풍경은 보고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또 냉정을 되찾게 한 면면을 보면 김삿갓(金炳淵)은 과거시험때 흥경래의 반란군과 싸우다가 죽은 정 군수의 충성심을 찬양하고, 반대로 반란군에 항복한 선천부사 김익순의 비겁함을 제목으로 시를 써 장원을 했으나 뒤에 김익순이 바로 자기의 할아버지임을 알고 “조상을 욕한 죄인이 어찌 하늘 아래 얼굴을 내놓고 다니리요” 하며 큰 삿갓을 쓰고 방



李 善 熹

· 본보 논설위원
· 전 경인매일 논설위원

랑의 길에 올랐다고 한다.

그러한 김삿갓도 동강을 찾아가서 냉정을 되찾고는 죽음을 맞았다고 보겠다.

우리 일행의 탐방일정은 동강-김삿갓묘-청령포-단종의 장릉을 둘러보게 되어 있었으나 김삿갓묘는 끝내 비 때문에

가지 못했고 단종의 장릉은 하늘이 슬피 비를 뿌리는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었다.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도 배로 동강을 건너 살펴볼 수가 있었다.

청령포쪽 동강가에 서있으면 단종, 수양대군, 사육신 등을 생각하게 하며 지꾸만 조선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듯했다.

그러나 동강은 그 때의 비극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듯 침묵한채 흐르고만 있었다.

그 곳에 동강마저 없었다면 그 때의 비극을 잠재울 수 있었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거기서도 동강은 사람들에게 냉정을 되찾게 하고 있었다.

보통 강은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쓸쓸하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영월쪽 동강은 사람들을 엄숙하게 대했다. 생각할수록 동강은 예사로운 강이 아니었다.

동강이 있기에 주변 풍경이 조화를 이루게 되었을 것이고, 동강이 있기에 김삿갓의 비극과 단종의 비극을 감싸 안은 듯하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동강은 강 그 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가르침을 주는 도인의 魂이 흐르는 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윤익한 본회감사 UAE 감사패 받아

윤익한 본회 상임감사(서울타임스 회장)는 주한 아랍에미레이트(UAE) 달마이나 대사로부터 한국과 UAE의 관계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달마이나 대사는 최근 윤 감사를 한남동 대사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베풀고, 이 자리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달마이나 주한 UAE 대사 부부, 윤익한 감사.



춘천교육대 조각공원에 건립된 학도병 참전기념비.

모교에 학도병 參戰碑건립 감격

올해로 6·25전쟁이 일어난지 59주년이 된다. 해마다 이 때가 되면 사선(死線)을 넘나드는 전선(戰線)에서 누구를 위해 싸웠으며,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하는 회의를 느끼곤 했다.

그 것은 날이 갈수록 6·25 전쟁을 잊어가고 있는 것에 비애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6·25는 남다른 감회가 있다. 6·25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학우이면서 전우(戰友)의 학도병 참전 기념비를 모교인 춘천교육대학교 조각공원 언저리에 세워 지난 6월 27일 제막을 했기 때문이다.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6·25때 나는 38도선에서 20Km도 안되는 춘천(春川)시에 소재하고 있는 춘천사범학교 3학년 졸업반에 재학중이었다.

북한군이 6·25 당일 춘천시를 점령하려고 필사적인 공격을 해왔을 때 춘천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7사단이 소양강(昭陽江)변에 진지를 구축, 포병 16대대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반격전을 펴 3일간이나 남침을 막았다. 이 때 춘천사범학교 학생들은 누구의 지지도 없이 학도호국단의 일원으로 자원해서 포탄을 운반, 포사격을 도왔다.

나는 2000년 강원민방에 창업 사장으로서 재직하면서 강원도 지역의 태백중

학교와 횡성중학교에서 학도병 전적비를 세워 후배 학생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한 바가 있었다.

모교인 춘천교육대학교 교정에 학도병 참전비를 세워 후배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소박한 생각을 갖고 2000년 4월에 총동창회와

다. 그러나 그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예산문제와 건립방법, 그리고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표류하던중 심우엽 교대 총장이 부임하여 2009년 개교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총동창회 사준환 회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서 급진전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건립기금이 모금되었고 모교의 이길종 교수가 조형물 조각을 맡아 마침내 지난 6월 27일 제막을 했다. 이 과정에 전쟁의 유물을 세운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막 10여일을 앞두고 망치로 작품을 망가뜨려 다시 제작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어떻든 우여곡절 끝에 춘천사범학교 6·25 참전 학도병 기념조형물이 제막되어 벽차오르는 감격을 억누를 수 없다.

학도병으로 참전한 동문들의 애국심을 기리고 산화한 영혼들이 교정에서 안식을 얻게 되기를 기원한다.



박 기 병

· 본회 회우
· 전 춘천 MBC 사장
· 전 GTB 강원민방 사장
· 한국기자협회 10,17대 회장

◀ 주 소 변 경 ▶

★ 김지용 회우 = 서울 강남구 청담동 5-14 301호 (우)135-948
★ 임응식 회우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새터마을 푸르지오 402-102

◀ 회 비 납 부 ▶

고수웅(09) 김정삼(09) 이종석(08) 정구중(09) 정재도(09) 천상기(07)

◀ 전 화 번 호 변 경 ▶

★ 이창호 회우 = 010-3212-6649
★ 임응식 회우 = 010-3758-4468
★ 조규만 회우 = 017-287-0103

◀ 부 음 ▶

★ 김길홍 회우 = 7월 16일 부친상. 장례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안동병원에서.

“5달러 낙찰입니다”

“5달러요~ 5달러요~”

경매에 나서기엔 많이 부족한 돈..
하지만 동생에게 자전거를 꼭 사주고 싶어
소년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차츰 소년의 마음을 알게 됐고..
보세요, 하나 둘 손을 내려 양보를 해주네요

자전거보다 더 소중한 사랑을 얻은 소년,
더불어 사는 법을 아는 멋진 사람으로 자라
더 넓은 세상에 따뜻함을 이어주겠죠?

마음을 열면
따뜻한 세상이 시작됩니다





세상 모든 감탄사 위에 **olleh KT!**

지금까지의 감탄사 wow를 뛰어넘는 최고의 감탄사 olleh!

새로운 KT가 당신께 듣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놀라운 생각, 담대한 도전을 하겠습니다

천 마디 칭찬보다 더 큰 한마디, olleh를 위해

KT 3만 8천 임직원은 새로운 KT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Olleh는 KT가 고객에게 듣고 싶은 최고의 감탄사이자, 새로운 KT의 경영방향입니다]

O는 기업가치 극대화 (Outstanding performance), L은 정보기술 리딩 (Leading IT), 또 다른 L은 자유로운 소통문화 (Liberal Culture)
E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 (Esteemed Company), H는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기업 (Happy Customer)을 뜻합니다

olleh kt